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40 OCTOBER 2012





Cover Story

우리는 함께 컸다,
온갖 역경을 뚫고,
Overcoming many difficulties,
we grew up together.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40 OCTOBER 2012

발행인 **이병훈**
Publisher Bill Lee

발행처 **남양**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홀딩스**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Holdings, Namyang Company

편집 **김민선**
Editor Minsun Kim

디자인 **디자인모루**
Design by Design MORU

인쇄 **정광인쇄(주)**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ECO

- 04 **자연오감 The Sense of Nature**
가을
Autumn
- 06 **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
The Healing Leaf Miracle Campaign
- 10 **자연의 선물 The Gifts of Nature**
새로운 전설의 시작,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
Rebirth of a Legend, Univera Skin Care 100
- 14 **에코넷. 한 순간을 담다 ECONET, Now and Here**
북두(北豆)의 고향, 유니젠 러시아 농장
Unigen Russia Farm in Kraskino,
the Hometown of Bookdoo(Soybeans)
- 18 **크라스키노 유니젠 러시아 농장 방문기**
Visit to Unigen Russia Farm in Krask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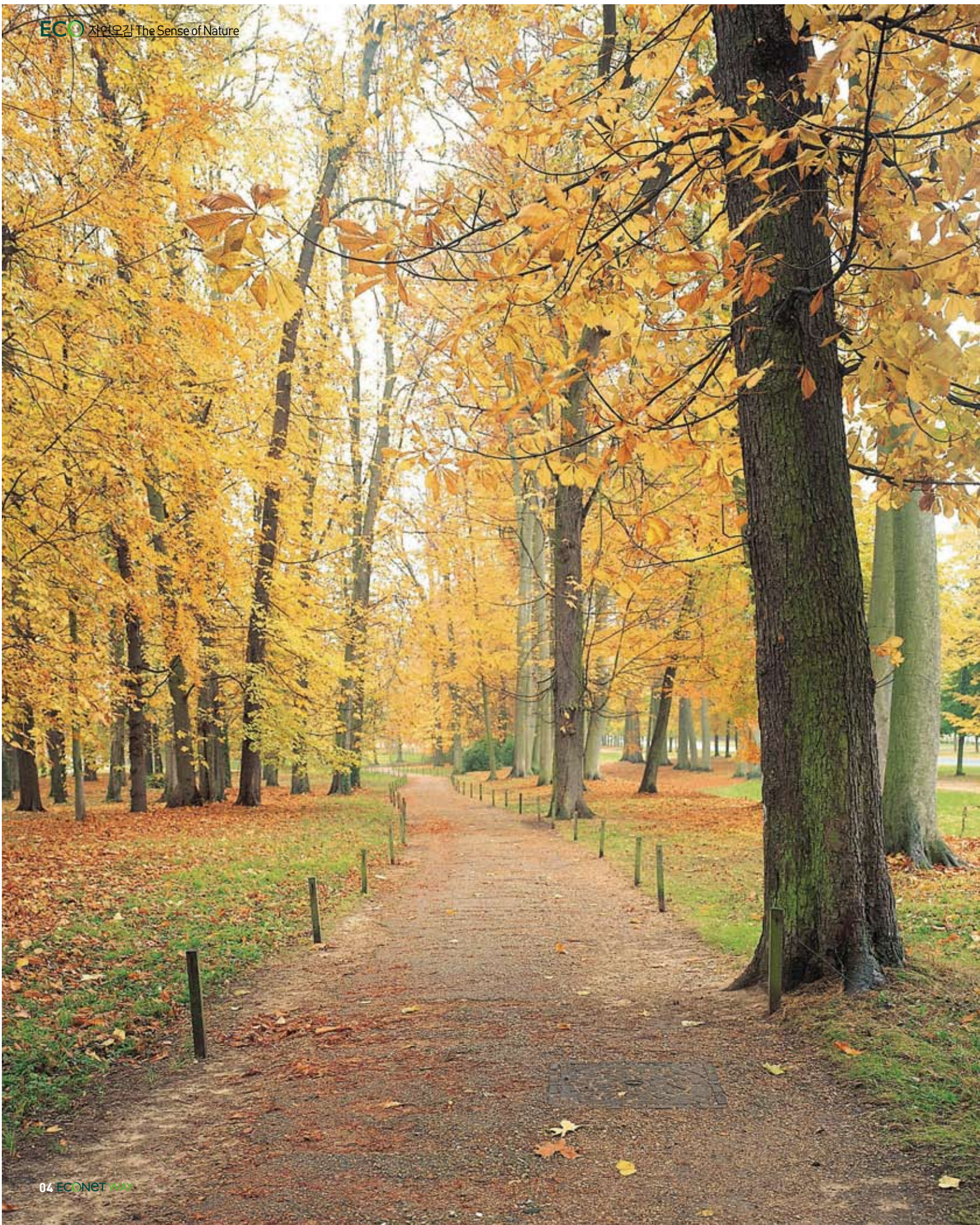


NET

- 20 **현장스케치** ① On the Scene
에코넷 미주본부, 시애틀로 이전
Relocation of ECONET Headquarters to Seattle
새로운 에코넷 미주본부
New ECONET Center in the USA
- 24 **현장스케치** ② On the Scene
알로콧 중국 창립 10주년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Aloecorp China
- 28 **현장스케치** ③ On the Scene
유니베라 웰니스 푸른 꿈나무 캠프
Univera Wellness Kids Camp
- 32 **현장스케치** ④ On the Scene
네이처텍 가정의 날 행사
Naturetech's Family Day Event
- 34 **현장스케치** ⑤ On the Scene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Happy Workplace with the Children
- 36 **유니베라 도전기** My Univera Story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꿈꾸며
Dreaming of a Life of the True Value

WAY

- 40 **에코넷 사람들의 이야기** Lives of fellow ECONETians
스포츠라이트를 받을 사람
The Ones in the Spotlight
- 42 **에코넷 북클럽** ECONET Book Club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Principled Bargaining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Things We Can See Only When We Stop
- 46 **에코넷 글마당** ① Literary Space
El Bernal de horcasitas
- 48 **에코넷 글마당** ② Literary Space
DELK, EL DULCE SABOR DE LA VIDA
- 50 **에코넷 역사** ECONET Archives
국민훈장 모란장
The Moran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 51 **에코넷 명소 사진전** My favorite place of ECONET
- 52 **에코넷 뉴스** ECONET News
- 62 **에코넷웨이 리뷰** ECONETWAY Review
퀴즈
Quiz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
열심히 일하여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뜻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시간을 매우 보람되게 썼다고 여길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멋진 옷으로 치장하고
그의 앞에 다가와 서겠는가!
그에게는 바람이나 노란 잎들도 목소리가 있고
그들로부터 감동적인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는 죽음이 들려 주는 엄숙한 노래를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원한 안식처로 갈 수 있으리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가을' 중에서

O what a glory doth this world put on
For him who, with a fervent heart, goes forth
Under the bright and glorious sky, and looks
On duties well performed, and days well spent!
For him the wind, ay, and the yellow leaves,
Shall have a voice, and give him eloquent teachings.
He shall so hear the solemn hymn that Death
Has lifted up for all, that he shall go
To his long resting-place without a tear.

Excerpted from 'Autumn (from Earlier Poems)',
written by Henry Wadsworth Longfellow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

The Healing Leaf Miracle Campaign



편집자 주 에코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단순한 재무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윤리, 환경, 사회문제 등 비재무성과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은 에코넷이 그리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에코넷웨이』는 조화와 상생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속한 사회, 국가와 함께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에코넷의 노력, 특히 그 동안 실천해 온 에코넷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1. 네이처텍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위한 작은 실천 (vol.37)
2. 유니젠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유니젠 - 경영지원본부 관리팀 임상득 부장을 만나다. (vol.38)
3. 유니베라 한국 - 작은 실천과 큰 행복 나눔 (vol.39)
4. 유니베라 한국 -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 (vol.40)

Editor's note ECONET wants to show that the most beautiful company in the world can become the most successful company in the world. Instead of simply pursuing financial achievements, sustainable business management considering also non-financial achievements such as ethics, environ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falls in line with ECONET's mission. ECONETWAY puts together the efforts made by ECONET to grow and develop together with the society and country which the company belongs to based on the principles of harmony and symbiosis and in particular ECONE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carried out so far, to redefine our roles.

1. Naturetech - Putting into action the compan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37)
2. Unigen in Harmony with Local Community - Interview with Sangdeuk Rim(Facility Management team / Management Support Division) (vol.38)
3. Univera Korea - Small Actions Leading to Sharing of Great Happiness (vol.39)
4. Univera Korea - The Healing Leaf Miracle Campaign (vol.40)

“힐링잎의 기적 서브퍼스트 팔찌입니다. 2천원의 팔찌 하나면 아이들 다섯 명에게 비타민을 전할 수 있어요.”

에코네시안이 모이는 행사장에는 보통 힐링잎의 기적을 홍보하는 부스가 있다. 비타민을 공급받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고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는 리플렛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을 돕는 서브퍼스트 팔찌를 구매할 수도 있는 부스다. 부스에 있다 보면 팔찌를 사기 위해 흔쾌히 지갑을 여시는 분, 몇 번을 망설이며 부스 앞을 여러 번 지나치다 결심한 듯 오시는 분, 팀원들의 팔찌까지 사는 마음이 큰 분, 슬쩍 부스 앞으로 와서 팔뚝에 채워진 팔찌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분 등 다양한 에코네시안을 만날 수 있다. 초록색 팔찌는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다. 하지만 팔찌는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여기서는 팔찌와 함께 에코네시안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팔찌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바로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려고 한다.

에코네시안과 유니베라의 모든 고객은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나는 캠페인에 대해 잘 모르고 팔찌를 구매한 적도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코네시안은 힐링잎의 기적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오늘 대리점에 나가 아침교실을 한 강사, 제품 개발 계획서를 열심히 만드는 직원, 실험 데이터를 뽑고 있는 연구원, 초인종을 누르는 유포들 모두 매 순간순간 힐링잎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힌트는 유니베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다. 유니베라의 제품에 표시된 이파리 속 숫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이파리의 이름은 힐링잎이고 숫자는 힐링잎의 개수이다. 이 힐링잎의 숫자에 모두를 동참하게 만드는 답이 숨어 있다.

매년 저개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중 비타민A·D 같은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5,4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고객들도 동참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품마다 일정 개수의 ‘힐링잎’이 표시돼 있는데 힐링잎 10개가 모이면 아이 1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병훈 총괄사장, 《한국경제》 2012년 1월 16일 인터뷰 중에서



© Vitamin Angels/LA11/Dayka

“This is a bracelet of Healing Leaf Miracle Serve-First. With this one bracelet worth KRW 2,000, we can deliver vitamins to five children.”

At the events of ECONET, there usually is a booth of Healing Leaf Miracle Campaign to meet the public. Here, you can view photos of children who are recipients of vitamins, take leaflets explaining the campaign, and purchase serve-first bracelets to help the children. At the booth, some happily open their purses to buy bracelets, some are a bit hesitant and pass the booth by several times before deciding to buy, and some show off the bracelets they are wearing. The green bracelets symbolically show they have joined the Healing Leaf Miracle Campaign. However, the bracelets are only a small part of the campaign. I would like to explain the overall campaign in detail to all ECONETians.

All customers of Univera and ECONETians take part in the campaign. Some may say, “I don’t know what the campaign is all about, and what’s more, I have never buy a bracelets.” Nonetheless, all ECONETians are part of the miracle. Lecturers who give their morning classes to distributors, staff who work hard to prepare their product development plans, researchers who collect experimental data and Univera planners (UPs) who ring a doorbell of a neighboring house are all working to create the miracle each and every moment. How is it possible? The clue lies in the products of Univera. Did you ever get to read the numbers inside the leaves marked on the case of Univera products? The leaves are called “healing leaves” and the number is the number of the leaves. Hidden in these numbers are the secrets for everyone to join the miracle.

Every year, about 54 million newborn babies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suffer from lack of necessary nutrients such as vitamin A and D. We wanted to provide support the campaign to enable the babies to live a healthy and happy life with our customers. That’s how the campaign started. Each product has numbers of the “healing leaves” marked on the case of it and ten leaves can save one child.

From Chairman and CEO Bill Lee’s interview with *Korea Economic Daily* on January 16, 2012



유니베라는 제품 판매액의 0.2%를 적립하여 생명의 비타민을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 유니베라 제품에는 힐링잎으로 환산된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유니베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표시된 수의 힐링잎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힐링잎 10개가 모이면 영양 결핍으로 고통 받는 아이 한 명에게 생명의 비타민을 전달할 수 있다. 비타민이 전달된 아이들의 숫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니베라 본사 1층의 키오스크 기계를 통해서 유니베라를 찾는 모든 이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유니베라는 2012년 8월까지 약 2,153,000명의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전달했다. 이 숫자는 때로는 뿌듯함으로, 때로는 책임감으로 에코네시안을 함께 묶는 숫자일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 생명을 구한 아이들의 숫자이니 말이다.

그래서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은 에코넷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연에서 받은 혜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이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기업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활동이기 때문이다. 알로콕, 네이처텍, 유니젠의 노력을 통해 만든 우리의 제품은 유포의 착한 판매와 소비자의 마음이 담긴 소비로 이어져 사회와의 나눔을 가져오는 선순환의 매개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와 구매, 그것을 촉진하는 에코네시안들의 모든 활동이 사회와의 나눔과 소통의 활동이 된다. 직접 천연물을 재배하여 연구하고 가공한 제품은 유니베라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우리의 제품이 고객에게 꾸준히 많이 전해질수록 고객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제품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에코네시안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 풍요를 다시 사회와 함께 나눈다. 이 모든 활동이 바로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이다.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 이윤에서 얼마를 떼어 기부하겠다는 단순한 계산보다는 “자연에서 받은 혜택으로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운 삶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사회”를 일구는 선순환이 에코네시안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활동이다. 이러한 꿈을 함께 꾸는 힐링잎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 에코네시안 모두가 매 순간 긍지와 자부심,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글 | 지선하 |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 유니베라 한국

Of the total Univera product sales, 0.2% is allotted to deliver vitamins to help save babies. All Univera products have numbers of the healing leaves marked on the case of it. This shows how many are automatically accumulated every time one buys a product. Ten healing leaves can deliver vitamins to save one child suffering from malnutrition. The number of children who were recipients of these vitamins may be checked by everyone visiting Univera on real time in our Web site or at the kiosk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ECONET Center. As of August 2012, Univera delivered vitamins to about 2.153 million children. This number ties ECONETians together with pride and responsibility as it shows how many lives we saved as a result.

That is why, the Healing Leaf Campaign can be said to be a system operating the entire ECONET. This campaign is an activity based on the philosophy of ECONET: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makes us healthy and wealthy, and shares the benefit with people. Our products made by Aloecorp, Naturetech, and Unigen with their efforts and sold by UPs with their good heart and used by customers with their healthy life are the medium of a virtuous cycle to share the benefit with the society. That is why all the activities of ECONETians carried out to produce and sell our products are parts of sharing and communicating with the society. Our products made from directly cultivating, researching, and processing natural goods are delivered to people through Univera. The more we steadily supply our products to our customers, the healthier they will become. And the more we have customers becoming healthier through our products, the more it will enrich ECONETians. The wealth is then shared with the global community. All these activities precisely constitute the Healing Leaf Miracle Campaign. Instead of simply calculating how much profit a company makes and how much it donates, the virtuous cycle of “enriching our lives with the best of nature and creating a society where everyone enjoys a rich life” is an activity that identifies ECONETians. I hope all ECONETians will take pride and feel a sense of achievement at all times when they share this dream through the Healing Leaf Campaign.

By Seon-ha Chi | Brand Communication Team | Univera Korea



유니베라는 비타민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잘 전달하기 위해 국제 구호단체 '비타민엔젤'과 함께 하고 있다. 미국 샌타바버라에 본부를 둔 비타민엔젤은 현재 42개국에서 필수영양소 결핍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비타민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이다. 미국 유니베라는 2006년부터, 한국 유니베라는 2011년부터 비타민엔젤과 함께 하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5,400만 명의 아이들이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매년 전 세계 5세 미만의 어린이 약 2,000만 명이 영양 결핍으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비타민' 공급이다.

비타민A는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비타민A의 결핍은 홍역, 말라리아, 디프테리아와 같은 질병 발생과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 위험을 높인다. 다른 치료법과 달리 높은 함량의 비타민A 캡슐은 한 아이에게 6개월 동안 필요한 비타민A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의 위험을 23%나 줄일 수 있다.

종합비타민도 중요하다. 신생아, 임산부, 그리고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비타민 결핍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데, 아이에게는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물리적 인지적 발달에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Univera works in partnership with "Vitamin Angel,"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to convey vitamins to children in need. Vitamin Angel, whose headquarters is in Santa Barbara, California, USA, currently provides vitamins to children in 42 countries suffering from malnutrition. Univera USA started working with the organization in 2006 and Univera Korea, in 2011.

Each year, about 54 million newborn babies suffer from malnutrition. In addition, about 20 million children worldwide below five years of age annually suffer from diseases from malnutrition and die from it. A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supply vitamins.

Vitamin A is an indispensable nutrient for immunity. Lack of vitamin A can lead to diseases such as measles, malaria, and diphtheria and expose children to the risk of acute respiratory diseases. Unlike other treatment methods, a capsule rich in vitamin A provides enough vitamin A necessary for six months to each child. This can reduce the risk of dying children below five years old by 23%.

Multi-vitamins are also important. Newborn babies, pregnant women, and children below five years old are groups with the greatest risk of lack of vitamins. Providing main vitamins and minerals indispensable for their health is very important. Children suffering from lack of vitamins have difficulty in fully developing their potentials because they lack the necessary nutrients to develop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새로운 전설의 시작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

Rebirth of a Legend Univera Skin Care 100

유니베라의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스킨케어. 이 제품이 1987년 유니베라에서 나온 첫 번째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제 26살이 된 이 제품에 담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Skin Care line is the best-selling flagship item of Univera. But few people know that it is the first cosmetic product developed by Univera in 1987. The 26-year-old item bears miraculous story in it.



알로에젤의 혁신을 이끈 스킨케어 히스토리

'아르몽 스킨케어(Alemont Skin Care)'는 1987년 4월 탄생한 남양알로에의 1호 화장품으로 당시 외국에서 수입한 알로에 화장품들이 알로에 원액을 10~15%를 함유한 데 반해 80%나 함유했다. 당시 남양알로에는 이 제품을 한 달에 10만 개 이상 판매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남양알로에의 알로에젤 제품인 스킨케어는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스테디셀러인 동시에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을 확보한 명실공히 유니베라의 대표 제품으로 성장했다.

Skin Care History which brought innovation to Aloe gel

Alemont Skin Care is the first cosmetic product of Namyang Aloe, dba Univera, which hit the market in April 1987. Compared to imported aloe cosmetics which contain only 10 to 15 % of aloe gel, it was 80% aloe gel. The market response was sensational: Namyang Aloe sold over 100,000 bottles of Alemont Skin Care per month. Since then it became a steady seller of Univera which has loyal and devoted customer base.



9번째 리뉴얼,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

‘스킨케어’의 9번째 업그레이드 제품인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은 더욱 강력해진 효과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2012년 5월 출시되었다. 알로에를 100% 담아 제품이 지닌 6가지 효과(피부 면역력 강화, 보습, 피부 재생, 진정, 피부 트러블 개선, 쿨링)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큐 매트릭스 알로에와 NO-NOS List가 처방되어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또한 유니베라를 대표하는 제품으로서 유니베라와 제품이 지닌 스토리를 패키지에 담아 전달한다. 상자 겉면에는 유니베라 3대 알로에 농장을 연결한 알로에 지도가 그려져 있고 용기 외부에는 유니베라의 자랑스러운 알로에 스토리가 담겨 있다.

9th Renewal, Univera Skincare 100

The 9th renewed version of Skincare, Univera Skincare 100 is launched in May 2012 with sleek package and powerful effect. Six benefits (improving skin immunity, moisturizing, skin renewal, soothing, acne solutions, cooling) of Skin Care are enhanced in this renewed 100% aloe product. Also the product is differentiated through Qmatrix aloe and NO-NOS list. Univera delivers the story of product and the company through message on the package of the flagship product. On the outside of the package the map which presents three aloe farms of ECONET is printed, and the bottle tells us the proud aloe story of Univera.

패키지에 담긴 스토리 1 Story 1 on Package

1976년에 설립된 유니베라는 세계 각지의 지속가능한 농장들과 최첨단 연구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 품질의 알로에를 재배, 가공하여 최고의 건강과 미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ince 1976, Univera's vast network of sustainable farms, combined with our state-of-the-art scientific research, have made us the global leader in the growing and processing of the highest quality aloe that we use to create incomparable health and beauty products.



패키지에 담긴 스토리 2 Story 2 on Package

스킨케어 100

“유니베라 알로에가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우리는 알로에 전문가입니다. 국내 최초로 알로에 재배에 성공했지요. 정성 들여 가꾸고 일구어 세계 최대, 최고의 알로에 농장으로 키웠고 마침내 생초 대비 6배 더 효과가 있는 큐 매트릭스 알로에도 개발했답니다. 정직한 우리는 ‘큐 매트릭스 알로에’를 100% 사용하고, 30가지 유해 가능 성분은 모두 덜어냈습니다. 이제 피부는 매일 더 촉촉해지고, 튼튼해지며, 안정을 찾고, 젊어지고, 트러블 없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유니베라가 만들었으니까요.

Skincare 100:

“A miraculous story of Univera aloe”

We are experts of aloe, and we were the first to cultivate aloe in Korea. Our efforts made the world's largest and best aloe farms in the world and produced Qmatrix aloe which is about six times more effective than raw aloe plant. We use 100% Qmatrix aloe in our products, and excluded 30 ingredients which may have harmful effect on skin. Your skin will be strong, healthy, young, fresh and well-moisturized every day, because Skincare 100 is created by Univera!

피부를 위한 진심, 숫자에 담아 전하다.

알로에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렇다면 알로에가 들어 있다고 모두 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은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강점들을 제품 상자 겉면에 숫자로 담아 전달한다.

Numbers tell Univera's devotion to healthy skin

Everybody knows aloe is good for skin. However, all products containing aloe do not have the same effect. Univera Skincare 100 has differentiated strengths in it: the numbers written in the package tell us the merits of Skincare 100.

1976

유니베라가 국내 최초로 알로에 시험재배에 성공한 해입니다.
ECONET successfully grow aloe in Korea for the first time.

13,090,968^{m²}

미국, 멕시코, 중국(하이난) 등 넓고 비옥한 유니베라의 3대 농장에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알로에가 자라고 있습니다.
Vast and fertile farms located in the USA, Mexico and China (Hainan) produces the world's best quality aloe.

50.1%

알로에 생산1위 기업인 유니베라는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알로에 원료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CONET, the No.1 producer of aloe, supplies over 50% of raw aloe material demand in the world.

100%

유니베라만의 특별한 테크놀로지로 피부가 필요한 영양 함량을 극대화한 '큐 매트릭스 알로에'가 100% 농축되어 있습니다.
Thanks to special technology of Univera, Skincare 100 contains 100% concentrate Qmatrix Aloe which contains maximum amount of nourishing material for skin.

80 Bottles

1987년 출시 이후, 스킨케어는 1분에 80개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 출시한 후 2011년 12월까지 사용된 스킨케어는 총 1,056,841,102개입니다.
Since its 1987 launch, Skin Care sells 80 bottles per one minute. * The total number of bottles sold up until December 2011 stands at 1,056,841,102

6 Times

유니베라의 4세대 알로에인 '큐 매트릭스 알로에'는 중간 다당체 함량이 생초 대비 6배 높아 피부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Qmatrix Aloe, the 4th generation of ECONET aloe, contains six times of modified Aloe polysaccharide, which improves skin immunity.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 알로에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 스킨케어의 찬란한 역사를 오늘도 이어나간다.

Univera Skincare 100 contains the wholesome benefit of Aloe and continues the glorious history of Skin Care.

글 | 최유진 과장 | 화장품MM팀 | 유니베라 한국

By Yoojin Choi Manager | Cosmetic MM Team | Univera Korea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 기내 면세점 입점

Skin Care 100 to be sold at in-flight duty free shop of Asiana Airlines

올해 초 유니베라는 첫 출시 이후 1분에 80개씩 판매되는 No.1 스테디셀러 제품인 '스킨케어 100'을 후보 제품으로 선정하여, 아시아나 항공 기내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였다. 다방면의 노력 끝에 올해 11월부터 아시아나 항공 기내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현재 기내 면세점 전용 쇼핑백 제작을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 항공 기내에서 판매되는 '유니베라 스킨케어 100'의 가격은 면세가격으로, 소비자가의 약 70%인 21달러로 정해졌다. 기내 면세점의 경우 출입국자들이 주로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만큼, 유니베라의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국내외 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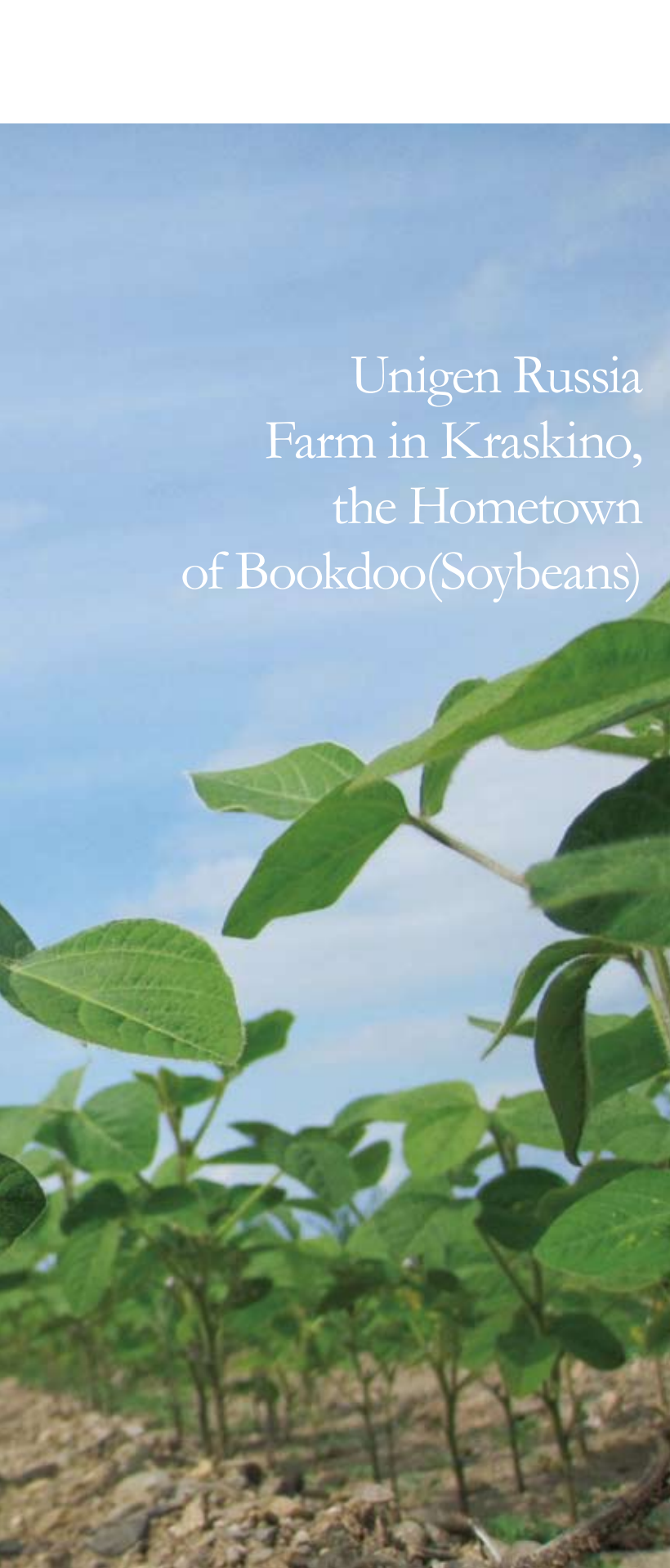
Early in this year Univera made effort for Skincare 100, a No.1 steady seller which sells 80 bottles per a minute since launching, to be sold at in-flight duty free shop of Asiana Airlines. With all possible efforts, the product will be in the duty-free shop on airplane from November, and special shopping bag is in preparation. The duty-free price of Skincare 100 is about 21 dollars; 70% of the usual price. On airplane, passengers usually purchase gift items, so the sales of Skincare 100 in airplanes is expected to promote high-end image of Univera and brand awareness in Korea as well as overseas.

글 | 김승현 대리 | 법무팀 | 유니베라 한국

By Seunghyun Kim Assistant Manager | Law Team | Univera Korea

북두(北豆)의 고향, 유니젠 러시아 농장





Unigen Russia Farm in Kraskino, the Hometown of Bookdoo(Soybeans)

가을이 오는 러시아 크라스키노의 벌판에는 100% NON-GMO 원산지 콩인 북두가 한창 영글어가고 있다. 평생 흙을 벗삼아온 러시아 농부들의 손에 의해 봄부터 씨가 뿌려지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온 북두는 이제 희망찬 결실을 향해 하루하루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다. 북두는 아한대(亞寒帶) 타이가 지역으로 콩의 원산지인 만주 남부 두만강 유역의 거친 환경을 견디며 자라나 속이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하여 에코넷 가족의 건강기능성식품 소재로 공급된다. 올해도 250헥타르(750,000평)의 경지에 북두가 과종되어 10월 중순경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유니젠 러시아 크라스키노 농장은 북두의 고향으로서 앞으로 더 우수한 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환경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콩 생산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글 | 최재영 법인장 | 유니젠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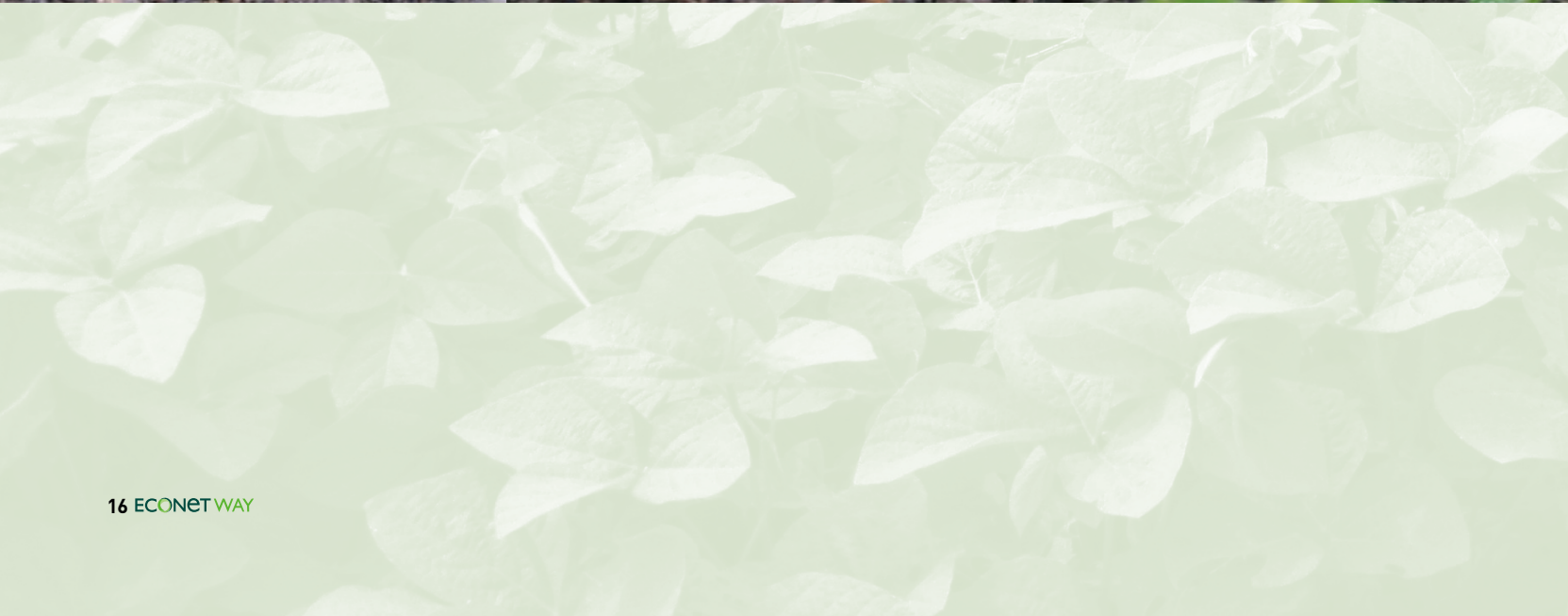
In the fields of Kraskino where fall has come, 100% non-GMO Bookdoo(soybeans) are fully ripening. The soybeans cultivated with care by Russian farmers, who have worked their entire life cultivating soil and sowed seeds in the spring, are ripening each and every day for an abundant harvest. Soybeans from the subpolar taiga region have grown well despite the rough environment of the Duman River basin in southern Manchuria. Firm beans rich in nutrients are used as an ingredient of health functional foods by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This year, the farmers also seeded soybeans along 250 hectares of arable land and are awaiting harvest in mid-October. As Unigen Russia Farm in Kraskino is the hometown of soybeans, the farmers plan to further develop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to produce better quality soybeans and rise as a world-class producer of the beans.

By Jaeyoung Choi President | Unigen Russia

복두 재배를 위한 봄 밭갈이와 파종 **Cultivating the land for the soybeans in the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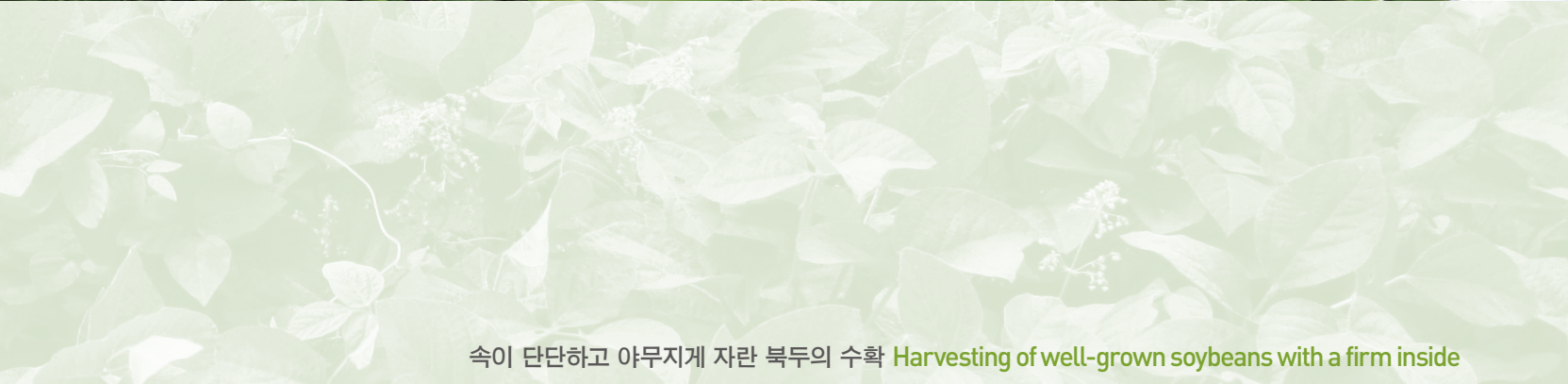


힘차게 대지로 솟아오른 복두의 새싹 **Buds of soybeans firmly sprouting on the land**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북두 Soybeans growing into green and fresh beans



속이 단단하고 아무지게 자란 북두의 수확 Harvesting of well-grown soybeans with a firm inside



크라스키노 유니젠 러시아 농장 방문기

Visit to Unigen Russia Farm in Kraskino

편집자 주 에코넷홀딩스는 생태전문가인 박병권 교수와 함께 8/17~8/19까지 3일 동안 크라스키노 유니젠 러시아 농장을 방문하여 토양, 기후, 풍토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위즈덤플레이스 주변의 다양한 야생화 식생을 조사했다. 유니젠 러시아 농장에 적합한 약용식물을 선정하기 위해 에코넷과 박교수는 공동연구하며 내년 6, 7월 두 차례에 걸쳐 야생화 조사를 마치고 야생화 포트폴리오를 만들 예정이다. 이 자료는 마케팅·홍보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다.

Editor's note ECONET Holdings visited Unigen Russian farm in Kraskino during three days from 17th to 19th August with the Professor Byeongkwon Park, an Ecologist, and sought his advice about soil, climate, and other natural conditions in the region and made a research into the wild flowers around Wisdom Place. ECONET and Prof. Park will engage in joint study to select medicinal plant to cultivate in Unigen Russian farm, and will study wild vegetation around the place in June and July next year to create wild flower portfolio. The data will be used in marketing and PR effort.

태양이 두드리고 비바람이 다듬었을까? 연해주 지역의 자연은 푸근한 할머니 가슴 같다. 포근함과 파스함이 흐르다가 싶으면 주름 같은 골짜기가 올망졸망하다. 청춘 시절의 비단 같던 살결이 나이가 들어 무디어 진가 싶으면, 새 생명을 일구는 데는 더 없이 풍요롭기에 힘과 기교가 젊은이의 탄탄한 근육처럼 넘치는 곳이 바로 연해주다.

유니젠 러시아 농장이 위치한 연해주 크라스키노 지역은 전형적인 습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긴 결빙일과 높은 안개지수, 그리고 청명일보다 압도적으로 긴 강우일이 지역 환경을 완벽하게 지배한다. 울창하게 들어찬 떡갈나무 집단이 여름이면 짙고 두툼한 녹색의 이불을 대지에 펼친다. 이에 질세라 크고 작은 풀들이 올림피아의 건줄 수 없는 긴장감과 속도감으로 성장과 생산을 일궈낸다. 만만치 않은 자연환경은 곤충이 먹고 살아야 할 시간적 여유를 결코 길게 주지 않는다. 새들도 많이 찾아 들지 않는다. 이 모두가 춥고 습하며 혹독한 자연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는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는 뜻이다.

생육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환경은 아름다움에 건강과 청정을 더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하는 최상의 적지를 제공한다. 이는 심한 일교차와 번덕스러운 날씨 등으로 인해 식물의 가장 큰 천적인 병해충의 창궐이 제어되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크고 길게 지속될 경우 대부분의 식물은 짧은 생육기간을 가진다 해도 풍부한 수확을 제공할 수 있다. 낮에 열심히 모은 유기물을 밤에 소비하는 일이 발생하

Chiseled by weather and sun, the nature of maritime area in Russia resembles grandmother's breasts. Deeply wrinkled valley has a snug, tender feel to it. The smooth silky skin of younger days is weathered by age, but the land is still fertile enough to embrace new lives with vigor like young men's muscle.

The maritime Russia where Unigen's Russian farm is located has every characteristics of typical wetland. The number of days below freezing point is long, fog is usually heavy and rain days are more than clear days in this region. Dense forest of oak trees spread thick green blanket on the land in summer. Tall and low grasses and bushes grow at a high speed. The harsh natural condition does not give insects enough time to live. Even birds rarely live in this area. This is a result of harsh, freezing, and wet environment. However, conversely it means that this harsh natural environment can be much useful for a certain purpose.

If we can control growth duration, such environment can provide us optimum conditions to produce clean, safe and healthy food because the capricious weather and huge daily temperature range prohibit disease and insect damage. when the huge daily temperature range last long, most of plants can ensure fruitful harvest in spite of short growth duration, because at night the plants do not squander nourishment accumulated during the day. Also, insects are less active in such weather, so they do not



지 않기 때문이다. 알뜰한 저축이나 다름 바 없다. 아울러, 추위에 약한 변온동물인 곤충류는 일교차가 심하면 활동력이 떨어져 좋은 먹이가 있어도 드러나는 피해를 일으킬 수 없다. 물리적 손상이 없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웰니스의 표상은 무엇인가? 바로 유기농이다. 달리 말하면 무농약 재배다. 말처럼 쉽지 않은 유기농을 부담 없이 펼칠 수 있는 망망대해를 방불케 하는 연해주. 아직 자연조건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하지 못했지만 풍부한 영양을 지닌 드넓은 토지는 반드시 풍족한 곡식과 열매로 보답할 것이다.

아울러 연해주는 우리 조상의 삶의 흔적이 묻힌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사적 고향이다.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을 되살리고 발해의 융성을 되살릴 의무가 우리 후손에게 있다. 그 작은 출발이 다른 아닌 에코넷의 러시아 농장이다. 당장은 수지가 맞지 않는데도 선구적으로 투자한 것이 놀라운데 이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농장 관계자의 설명은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뭔가 모를 흥분과 희망은 오랜 시간 흩어지지 않았고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농장을 농업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역사문화적 환경생태적 인재양성의 거점이자 지원센터로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지나친 것일까 생각해 본다.

글 | 박병권 (재)국제자연환경교육재단 ISEE 학장

cause much damage.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produce crop without insect damage.

By what is wellness characterized? One of the answers is organic farming, that is to say pesticide-free producing. The vast land of a maritime province can be the land of opportunity for organic farming even though it is not easy as it seems. If we will find a plant which suits this natural condition, a rich harvest will reward the vest land one day.

Also this region is our historic and cultural home where our ancestors' relics were buried. It is our duty to revive the prosperity of ancient Korea. The humble beginning may be this ECONET farm in Russia. It is surprising to see that ECONET made a preemptive investment even though the prospect of land is still opaque, but it is even more heartening to listen to the explanation of the farm employee that they plan to use the land for the society and the country. The hope and exhilaration which filled my heart did not dissipate soon, and I hoped one day I would also be able to join such a noble cause. My one private wish is that they do not use the farm only for cultivation, but also use as the base for historic, cultural study and ecology education for the future of Korea and its people.

By Byeongkwon Park |
The International School for Environmental Education Foundation





시애틀의 새로운 에코넷센터 New ECONET Center in Seattle

에코넷 미주본부, 시애틀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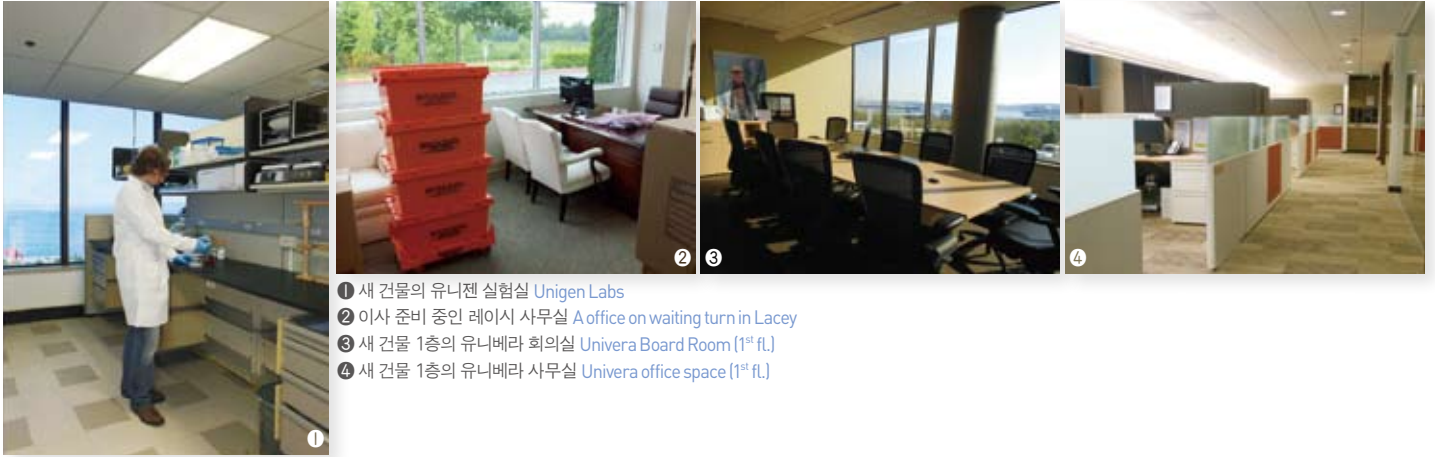
Relocation of ECONET Headquarters to Seattle

2011년 11월 소집된 전 직원 회의에서 에코넷 경영진은 에코넷 본부의 시애틀 이전 계획을 공지했다. 회의에서는 이전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함께 이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알렸다. 인 사팀은 이전과 통근에 대한 새 업무를 개설하면서 향후 4개월 간 진행할 통근자를 위한 행사와 함께 거래처와의 업무 조정, 통근자들의 통근 코스에 대해 설계했다.

에코넷 가족사 경영진은 시애틀 이전을 2012년 7월 16일로 확정했다. 에코넷 홀딩스가 이전 작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이전은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An “All-Employee-Meeting” was held November 2011; the Executive Management team announced the Company relocation to Seattle. The announcement included details and regarding the relocation and commuter benefit packages that were going to be provided to employees willing to relocate with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Human Resources (HR) created a folder with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relocation and commuter. Commuter fairs were held over the next four month period by HR so that employees could work with the vendors and map out a commute that best fit their needs.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Management team confirmed that the relo-



① 새 건물의 유니젠 실험실 Unigen Labs
 ② 이사 준비 중인 레이시 사무실 A office on waiting turn in Lacey
 ③ 새 건물 1층의 유니베라 회의실 Univera Board Room (1st fl.)
 ④ 새 건물 1층의 유니베라 사무실 Univera office space (1st fl.)

에코넷 이전 프로젝트는 레이시 전 직원들을 위한 시애틀 센터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견학은 6월 19일, 21일, 23일에 있었던 대규모 견학을 비롯하여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견학을 통해 에코넷 가족사는 새로운 에코넷 본부를 한 발 앞서 만나볼 수 있었다. 견학에 참가한 직원들에게는 교통편이 제공되었고 매주 토요일 견학에는 점심식사도 포함되었다. 직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6월에는 직원들을 위해 매주 '시애틀 이전에 대한 질의응답'과 '시애틀 이전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었다.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4차례의 이전 지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전에 앞서 전 직원은 가져가지 않을 파일들을 정리하고 폐기했다. 에코넷은 6월에 두 번, 7월에 한 번 '파일 폐기의 날'을 진행하였다.

모두가 분주하게 짐을 챙긴 레이시의 마지막 주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과 정든 사무실을 떠나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에코넷 경영진은 직원들이 이전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레이시의 마지막 날과 시애틀 이전 후 한 주간 동안 점심식사가 제공되었다. 점심시간에 인사팀은 주변 식당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전으로 인한 이점 중 하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월 13일 금요일, 드디어 이전 당일이 되었다. 레이시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오찬이 제공되었고, 영업, 연구, 마케팅 부서는 차를 타고 약 100km를 달려 꿈에 그리던 새 사옥에 도착하였다. 이번 이전은 에코넷 가족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열어주는 가슴 두근거리는 모험의 시작이다.

transition to Seattle was going to take place July 16, 2012. ECONET Holdings had many responsibilities to get the transition process started! This has been a very exciting transition for all employees involved.

The ECONET team kicked off the move by conducting Seattle facility tours for all Lacey employees. The tours were held over a period of three weeks with the largest tours on June 19th, 21st, and 23rd. These tours allowed employees to see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new headquarters. The company provided transportation to employees and on the Saturday tour, provided a lunch. The overall response was tremendous.

To ensure a smooth relocation, employee communications increased in June with weekly "Seattle Transition FAQ'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 weekly "Seattle Move Checklist". Four Moving Instruction Workshops were offered in Lacey from the 25th of June through the 5th of July. The goal prior to moving was for all employees to organize and purge files that were not essential to move. ECONET held two file purging days in June and one in July.

The last week in Lacey was bittersweet while employees packed their offices to prepare for the move to Seattle. ECONET Management wanted to make the transition as easy as possible for employees. Lunches were catered the last day in Lacey and the first full week in Seattle. Human Resources planned the lunches to introduce the surrounding restaurants to our employees. This transition is allowing us to form new relationships.

Friday, July 13th was the big day! An All employee lunch was provided in Lacey, and the sales, research, and marketing departments in Lacey hit the road and drove 60 miles north to the Emerald City. This move has opened new horizons for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and is a new beginning for a great adventure!

새로운 에코넷 미주본부

New ECONET Center in the USA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에코넷 미국의 유니베라, 유니젠, 알로콥, 힐탑가든, 그리고 에코넷홀딩스 USA 등 에코넷 5개 가족사는 7월 16일, 7년 동안 정들었던 레이스 사무실에서 시애틀 시내에 자리잡은 새로운 에코넷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유니베라의 고객지원실과 물류팀은 레이스의 기존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에코넷홀딩스는 미주 에코넷센터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말까지 임대차계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말 임차인인 신약개발회사가 건물을 비운 후 올 1월이 되어야 비로소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베라의 컨벤션이 8월 9일에 시애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전을 완료하려면 7월 13일까지는 프로젝트를 마쳐야 한다는 일정으로 공사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월 말에 감리회사 선정을 시작으로, 설계회사, 시공회사, 기타 하청/용역회사를 차례차례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불과 5개월 남짓한 빠른 기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초기계획단계에서 설계회사 및 감리회사와 많은 시간을 협의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며 준비했지만, 실제 진행과정에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프로젝트 참여회사들(설계회사, 시공업체, 감리회사, 하청회사)이 일치단결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하고 노력한 결과 7월 13일 일정 내에 무사히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Univera, Unigen, Aloecorp, Hilltop Gardens, ECONET Holdings located in Lacey, Washington, USA, left their office they resided for the past seven years to a new ECONET Center in Seattle on July 16th. * Customer Care and Warehouse of Univera still remain in the Lacey facility.

In 2010, ECONET Holdings purchased a building for a new ECONET Center. The building was not available immediately because it was occupied by a previous tenant under the contract that expired at the end of 2011. The tenant, a biotech company, moved out last December and the renovation project launched in early this year. Knowing the 2012 Univera Annual Convention will be held in Seattle on August 9th, the renovation project must be completed by July 13th. The project manager was immediately hired at the end of January, followed by selection of architecture firm, general constructor, and sub-contractors. To finish renovation under the tight schedule with less than 6 months, we spent many hours with the architecture firm and general contractor to come up with very detailed project plan. Nevertheless, a number of unexpected issues popped up as the construction progressed. Whenever these issues came up, the entire project team collectively sought out solution with rigor, resulting in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renovation within the due date of July 13th.

새 건물 1층 내부 Atrium (view from the 1st fl.)





5 실내 공사 중인 유니베라 사무실 Univera office space [1st fl.] 6 새 에코넷센터 현관 New ECONET sign for new building 7 새 에코넷센터의 고 이연호 회장의 흉상 Yunho Lee Honorable Bust alcove

시애틀 시내 1번가 3005번지에 위치한 새로운 에코넷센터는 지상4층 건물로 각 층마다 500평(약 만7천 평방피트) 규모로 총 2천 평(약 7만 평방피트)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반지하 2개 층은 9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주차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서쪽으로는 퓨짓사운드(Puget Sound: 18세기말 처음으로 미대륙의 북태평양 연안을 탐험했던 George Vancouver의 부관이었던 Peter Puget의 이름을 딴 육지와 육지 사이에 낀 좁은 해협)의 경관이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져 있으며, 건물의 약 20미터 아래에는 시애틀의 명소인 올림픽조각공원(Olympic Sculpture Park)이 마치 에코넷센터의 정원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시민공원은 모든 시애틀 시민들에게 사용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니베라의 각종 야외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동쪽에는 시애틀의 상징이자 명물인 스페이스니들(Space Needle: 우주를 향해 마치 바늘과 같이 솟아 있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지상160미터(500 피트)의 첨탑구조물. 1962년 만국박람회(World's Fair)를 기념해서 지어졌음)이 바로 눈앞에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건물 각 층의 구성을 보면, 1층 공간의 반 정도는 유니베라의 사무실이며, 나머지 반은 유니베라의 어소시에이트들을 위한 교육, 체험, 상담, 그리고 각종 행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유니젠의 랩 시설과 에코넷 웰니스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웰니스센터에는 현재 약 120평(4천 평방피트) 규모에 10여 대의 각종 최신 피트니스 장비를 갖춘 공간, 그리고 부속 로커와 샤워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웰니스센터는 조만간 2층에 확보한 100여 평의 공간에 요가 룸 등을 추가로 마련해서 에코넷의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구현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알로콥, 힐탑가든, 에코넷홀딩스 등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4층에는 유니젠의 다양한 랩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인 루프탑가든(Roof Top Garden)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건평 2천 평(7만 평방피트) 중에 약 천4백 평(5만 평방피트)이 사무실 공간으로 쓰이고 약 600평(2만 평방피트) 정도가 연구개발을 위한 유니젠의 각종 랩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넷센터의 시애틀 이전은 단순히 새 사옥으로의 이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미국 에코네시안들의 시애틀 시대의 웅대한 새로운 장을 열고, 향후 시애틀에서 최고의 글로벌 웰니스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더욱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 | 고성환 부사장 | 에코넷홀딩스 USA

* 에코넷 홀딩스는 7월 30일 미국 내 50여 개의 온라인 미디어, 신문, 방송, 관련산업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공식보도자료를 전달해서 에코넷센터의 시애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www.marketwire.com/press-release/seattles-life-sciences-biotech-community-grows-as-univera-unigen-move-new-headquarters-1685102.htm>)

New ECONET Center on 3005 1st avenue in Seattle is a four-story building, with each floor as wide as 17,000 square feet, in the whole provides space approximately 70,000 square feet. Two semi-basement floors are served as a parking lot that can accommodate up to 90 cars at the same time. In the west of the building, the panoramic view of Puget Sound presents itself. Seattle's famous Olympic Sculpture Park is only 100 feet away from the ECONET Center, like our own private garden. Since this park is open to public, future outdoor events of Univera can be also held in this beautiful venue. In the east of the building, the Space Needle, the 500-foot-high symbol of Seattle, is exuding magnificence.

As we look at each floor, half of the first floor serves as Univera office, whereas the other half is dedicated for education, experience, training and conference of Univera associates. Laboratories of Unigen and ECONET Wellness Center are on the second floor. The 4,000 square feet Wellness center is furnished with more than 10 brand-new fitness machines. It is equipped with locker rooms with shower facility. We have reserved another 4,000 square feet space on the second floor for a Yoga Room, which will complete a wide range of total wellness programs for all of ECONETians in the future. Offices of Aloecorp, Hilltop Gardens, and ECONET Holdings are on the third floor. On the fourth floor there are laboratories of Unigen and Roof Top Garden being served as rest area for all employees. In summary, out of the total available 70,000 square feet, about 50,000 square feet is utilized for offices, and the remaining 20,000 square feet is space for R&D activities.

The relocation of ECONET Center from Lacey to Seattle has a lot more meaning than a mere change of location. It not only heralds the grand opening of a new Seattle era for all ECONETians in the US, but also provides us with a strategic platform to become a leading global wellness company by 2020.

By Sung-Hwan Ko Executive Vice President | ECONET Holdings USA



* On July 30th, ECONET Holdings distributed an official press release to more than 50 local and national medias including newspapers, TVs, radios, natural product magazines, and online news. The official press release can be viewed in the following web page. (<http://www.marketwire.com/press-release/seattles-life-sciences-biotech-community-grows-as-univera-unigen-move-new-headquarters-1685102.htm>)



알로콥 중국 창립 10주년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Aloecorp China

7월 20일 알로콥 중국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세계 알로에 원료 시장의 아시아권을 책임지고 있는 알로콥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통해 대단위 농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알로에 수급과 우수한 품질의 원료 생산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생산직/농장직/관리직을 포함한 150여 명의 직원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10주년 기념 티셔츠를 차려 입고 한 자리에 모여 풍성한 만찬을 즐겼다. 특히 알로콥 중국을 총괄하는 민병국 법인장은 창립 10주년 기념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알로콥 중국의 성장은 모든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에코넷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알로콥 중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축하, 뷔페 만찬, 행운권 추첨 순서로 진행된 행사는 직원들의 화목과 단합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글 | 정의선 대리 | 알로콥 중국

On July 20, Aloecorp China held a special event to commemorate its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Aloecorp China is responsible for bringing the world's aloe raw materials into the Asian market. For the last 10 years, the company has worked hard to construct a large farm to stably supply aloe and to produce raw materials of excellent quality. Around 150 employees of production workers, farmers, and managerial staff wore t-shirts specially prepared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and enjoyed a feast. President Byounggug Min emphasized at the event that the growth of Aloecorp China is thanks to the efforts made by each staff. He also emphasized that as long as the staff does not deviate from the ECONET spirit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the company's future is very bright. The event was followed by congratulatory remarks by the staff, buffet dinner, and lottery. It successfully concluded with the entire staff harmoniously uniting.

By Uisun Jung Assistant Manager | Aloecorp China



알로콥 중국 10주년을 기념하며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Aloecorp China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알로콥 중국은 창립10주년을 맞았다. 10년 전 7월 12일, 알로콥 중국(중국 등록 법인명 : 하이난남양알로에생물공정유한회사)은 창립되었다.

10년, 긴 역사로 보면 짧은 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과정 중에 잊어서는 안될 일들이 많고 많다. 그 동안 우리는 좋은 일도 있었고 뜻하지 않은 역경도 있었다. 희열도 있었고 근심 걱정도 있었다. 2006년 하이난 고속철도의 시공은 농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미 계획 완료된 제1농장과 제2농장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졌다. 2008년에는 공장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IMF 위기가 닥쳤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회사 창립 이래 최대규모로 감원을 단행하였다. 총37명이 퇴사하였고, 이는 당시 직원의 29%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2009~2010년에는 연속 2년 폭우로 인하여 몇 년간 힘들게 키운 알로에 농장이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되어 버렸다. 목놓아 울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알로콥 직원들은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역경을 헤쳐왔다. 현재 우리는 150명 정규직원, 3,000만 위안/년을 초과하는 매출액, 그리고 200만 위안/년의 납세 의무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하이난

On July 12, ten years ago, Aloecorp China, was established. Now, we look back and commemorate those past ten years.

Ten years may seem short now as a matter of long history. However, let's not forget the many things that happened during those 10 years which saw the growth of our company. We have experienced good things as well as unexpected difficulties in the past 10 years. At times, we were excited and at times, we were also worried. The construction of the Hainan Expressway in 2006 brought difficulty to the management of our farm and split our farm into two. Furtherm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2008 came not long after our factory started production. To respond to the crisis, production had to be curtailed. Our company then carried out the largest downsizing since its establishment. A total of 37 staff, that is 29 percent of the staff, left the company then. In 2009 and 2010, heavy rains for two consecutive years swept away the aloe farm that we arduously worked on. We couldn't even take the time to bitterly weep.

However, the Aloecorp staff have worked hard with a sense of duty and joined forces with each other to overcome all obstacles for the past 10 years. We have grown into an excellent company dutifully paying tax of CNY 2 million a year with 150 as regular staff and annual sales exceeding CNY 30 million. This has also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GMP, IASC, HALAL, KOSHER, QS 등 인증을 받았으며 하이난 성 정부의 인정으로 '우수 수출기업 그린터미널' 혜택을 받았다. 또한 2010~2011년 연이어 정부에서 우수기업에게 지급하는 총 130만 위안에 달하는 자금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는 알로콥 인의 열정, 지혜,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정신과 팀워크 정신의 결과이다. 이에 나는 알로콥 중국을 대표하여 그간 회사에 혼신을 다해준 직원들, 그리고 바쁜 업무를 이해해 준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지나온 10년이란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초창기 시절 회사의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한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0년 전 회사는 단 2명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2톤/월(月)의 알로에 수출로 회사를 유지하였으며, 또한 천신만고 끝에 물, 전기, 사무실도 없는 가신촌의 황량한 벌판에 농장/공장을 세웠다. 그 어려움과 생활환경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험난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초기의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역사가 이 분들을 기억하고 알로콥 중국이 이 분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알로콥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알로콥인들의 노력과 희생정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에코넷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공장, 농장, 영업, 구매, 총무, 인사, 재무, 전 부서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10년의 시간은 역사가 되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점에서 에코넷 정신에 기초해 두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에 도전장을 내밀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 회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체 임직원 및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또한 에코넷의 무한한 번창을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글 | 린다 부장 | 알로콥 중국

ment of Hainan. We acquired the GMP, IASC, HALAL, KOSHER, and QS certificates and etc. and got the benefit of "an excellent export company green terminal" from the Hainan government. In addition, in 2010 and 2011, we received benefits of a total of CNY 1.3 million given to outstanding companies by the Chinese government. All of these achievements were thanks to the teamwork, sacrificial devotion not fearing difficulties, passion and wisdom of the Aloecorp staff. As the representative of Aloecorp Chin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staff for their devoted work for the company and my family for having been understanding of my busy schedule.

Looking back on the last 10 years, we should not forget those who fully devoted to first build the company. Ten years ago, the company only had two staff working in the office. The staff maintained the office by exporting two tons of aloe per a month and went through hellish times to build a factory and farm in the vast field of Jiaxin Village where water, electricity or office did not exist. The difficulties and weak living environment back then were unimaginably harsh. Our current staff does not remember the names of the initial staff, but their achievements will be remembered in history, I believe. Thanks to such efforts made by the staff of Aloecorp, we have developed this far, in my opinion. I express once again my respect and gratitude to the efforts and devotion of Aloecorp staff so far.

Based on the basic ideology of ECONET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the entire staff of Aloecorp China, including those working in the factory, farms, sales, purchasing, general affairs, human resources, and finance, will not fear to take up new challenges and march forward. Ten years have now become history. And we will take up new challenges, again sacrificially devote and not fear obstacles based on the spirit of ECONET from this new point in time to create a new history.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once again to all the staff who have worked hard for the company. I wish health and happiness to them and their families and the continued growth and success of ECONET.

Thank you.

By Linda General Manager | Aloecorp China

十年磨砺， 再创辉煌

各位领导、各位同事：

大家好！在这个骄阳似火的七月，我们迎来了我们公司十岁的生日！

十年前的7月12日，海南南洋芦荟生物工程（美国）有限公司诞生了！

十年，在历史的长河中不过是短暂的一瞬间，然而，在企业成长的里程中，在不断变化的经营环境里，值得记忆的东西太多太多，期间，我们经历了顺境，也度过了困境，感受过喜悦，也品尝过烦恼，06年海南东环铁路的修建，给农场带来了毁灭性的灾难，已经规划完成美丽的一农场和二农场被铁路线一分为二；08年工厂刚刚建成投产，正当我们鼓足了劲准备大干一场之际，一场震撼世界的亚洲金融危机暴发了，为保存企业，不得不缩减产量，进行了有史以来最大规模的一次裁员！累计裁员37人，占当时员工总数的29%；2009—2010连续两年遭受了百年不遇的特大暴雨的洗礼，看着几年耕作、长势良好即将收割的芦荟一夜之间变得裸粒无收，我们欲哭无泪！

然而，我们并没有被这些困难压倒，尽管我们生不逢时，尽管大自然没给我们更多的惠顾，企业的使命把我们这些芦荟人的心凝结在一起，团结在一起，让我们携手并肩，共度难关，让我们同舟共济，共同走过了这十年的风风雨雨！如今我们已经发展成拥有150名正式员工，年销售额超过3000万元人民币，年纳税额逾200万元人民币的优质企业，为海南当地的发展做出了自己的贡献。先后取得了GMP、IASC、HALAL、KOSHER、QS等多项专业认证。同时，我们的努力也得到了海南省政府的认可，被海南省商检局列为“优质出口企业绿色通道”的范围。

2010—2011年两年累计从政府取得财政资金补贴130万元人民币。

相信在这些成果的背后，闪耀的是芦荟人的工作热情和智慧；倾注的是我们不怕困难、勇于奉献的团队精神；承载的是全体员工及家属对公司的支持理解，凝结的是我们对企业的挚爱！在此，请允许我代表南洋芦荟公司向公司的建设付出艰苦努力的各位员工、向给予我们大力支持和理解的家人表示衷心的感谢！

当我们回首往事，盘点我们曾经经历过的喜与忧的时候，我们不能忘记南洋芦荟创业初期的各位元老，十年前，公司的前身是只有两个人的办事处，他们先在海口金盘区租用了一个完全是手工作业的小工厂，靠每月2吨芦荟干片的出口，支撑着这个企业，后来他们又历经千辛万苦，在茄新村这片荒芜的土地上，创立了农场，建设了工厂，当时，这里没有水，没有电，也没有办公室。他们喝的是茄新河水，清水煮面配老干妈是他们的快乐午餐，用茅草搭起的八角蓬，是他们简易的办公地点……也许后人不会记得这些创业者的名字，也许他们的音容笑貌会被淡忘，这里，无需对此浓彩重墨，相信历史会记得他们，公司会铭记这一切！正是因

为一代一代的芦荟人的努力、付出，才为今天的发展奠定了基础，创造了条件，做好了准备，在此，让我们对一代又一代芦荟人的努力和付出表示由衷的敬意和诚挚的感谢！

值得欣慰的是：新一代领导人秉承了“将大自然的恩赐返还给人类”的企业哲学，继往开来，组建了一支以工厂、农场、销售为主框架，以采购、后勤、人事、财务为后勤保障的队伍，这是一支年富力强的团队，一支具有战斗力的团队，一支不怕困难，敢于面对挑战的团队！引用毛泽东同志曾经说过的一句话，那就是：“数风流人物，还看今朝”！

值得一提的是，今天还有一些员工不能参加我们的庆典活动，他们仍然工作在生产的第一线，保安队的值班人员，工程部的值班人员，东方农场的全体员工，上海营业部的团队，在此，让我们一并表示谢意！

十年磨砺成以往，再创辉煌待此时，今天让我们站在新的起跑线上，整理行囊，传承企业文化，抓住机遇，迎接新挑战，继续的发扬不怕困难、勇于奉献的芦荟精神，再立伟业，再创辉煌！

最后，祝愿我们全体员工及家人身体健康，祝愿我们的企业蒸蒸日上！
谢谢！

Linda 在公司十周年庆典会的发言



유니베라 웰니스 푸른 꿈나무 캠프

Univera Wellness Kids Camp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웰니스 모닝!”

웰니스의 나눔을 실천하는 ‘웰니스 푸른 꿈나무 캠프’는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모토로 유니베라 UP(Univera Planner)들을 위한 복지 혜택의 하나이다. UP들의 자녀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캠프를 제공하여 유니베라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부모님의 일을 이해하는 시간이자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부모님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캠프이다. 보통 캠프는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초등학생은 4학년~6학년 하계캠프, 중학생은 동계캠프로 시행했으나 2012년 여름부터는 부장 직급 이상(웰니스코치) UP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인원에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 여름에 한 번 시행한다.

“I love you! Be happy! Wellness morning!”

Univera Green Kids Camp is one of the benefits for Univera UPs (Univera Planners) given on the motion of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It is an opportunity for children of UPs to have an enlightenment about the job of their parents and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pride. The camp was originally held twice a year, summer camp for children of 4th to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winter camp for children in Middle School. From 2012, any children of UPs in the rank of Wellness Coach or higher can apply for summer camp.

연도 Year	내용 History
1987	포천 농장 첫 개최 The first camp held in Pocheon farm
1987~2007	하계 캠프 연 1회 실시 The summer camp became annual event
2000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한 캠프 운영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진행 Camp programs were developed with the collaboration with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2008~2012	동계(중학생 대상), 하계(초등학생 대상) 캠프 연 2회 실시 Wellness camp became biannual; Winter camp for children at middle school, Summer camp for children at elementary school
2013~	연 1회 하계 캠프 진행 예정 Summer camp is going to be held on annual basis



1987년 포천의 농장과 계곡에서 20여 명의 아이들로 처음 시작한 캠프는 매년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MF와 같이 경영이 힘들었던 시절에도 현장을 위한 캠프는 지속되었고 오히려 더 좋은 장소와 시설, 참여자 확대 등을 통해 현장을 위한 본사의 마음을 UP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다. 1996년 당시 캠프를 맡은 백승우 본부장은 “당시에는 숙소 규모가 작아 80여 명의 아이들만을 캠프에 초청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시설이나 먹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불편함도 있었지만, 숲속 체험, 자연 그림 그리기, 계곡 물놀이, 공포체험 등은 지금의 어떤 캠프보다도 자유롭고 자연친화적인 캠프였다.”고 당시 캠프 분위기를 전했다.

작은 캠프가 미래에는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만들고 있다. 20여 명으로 시작한 캠프가 이제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유니베라의 역사와 함께 한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캠프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했다. 그 변화 속에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이 있었다. 과거의 캠프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성장에 맞추어 놀이와 학습과 성장이 함께하는 캠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한 캠프 운영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 캠퍼스라는 유익한 장소를 확보하였다. 무엇보다 특성화 대학교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특별한 학과들과 교수들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 문화사랑의 날이라 명명한 프로그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서피스디자인학과’, ‘푸드스타일리스트학과’, ‘캐릭터디자인학과’, ‘사물놀이협회’, ‘유아교육학과’ 등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특별한 학과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각 학과 교수들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니베라만의 특별한

In 1987, the camp started with about 20 kids in farm and valley in Pocheon, and since then it has been held every year without exception. Even in times of economic stress such as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the camp was held, and the company tried to deliver sincerity toward Ups through striving to find better location, facility and also expand number of children invited. Seungwoo Baek, who was in charge of 1996 camp said “At that time, it was hard to find facility which can accommodate large group, so we could invite only 80 kids at one time. In those times, good facility or quality food was hard to come by, but we had such a great time together in the nature, having a picnic to forest, drawing pictures, splashing water at creeks and experiencing funny ghost play.”

The thought that these little gatherings leads to greater happiness in the future is the cause of our efforts to spend time with each and every kids and make them happy. The camp started with 20 kids and has grown to invite 400 kids now.

For the 26 years the camp has changed in tandem with the tide of times. The change was supported by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In the past, camp aimed at having fun and finding self-respect, but today’s camp needs to include learning through play keeping pace with the children’s growth. To this end, ECONET collaborated with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from 2000 to develop camp programs. As a result, three programs: love for human being, love for nature, love for culture were completed, and the University’s campus was utilized to run the camp. The biggest benefit is that the programs are prepared by special departments and professors of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The program called “a day of love for culture” has been running with the support of special departments such as “surface design” “food styling” “character design”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사랑 프로그램은 공동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배우며, 친구들과 협력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도록 활동적이고 감성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자연사랑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사와 나눔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2000년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준용 본부장(사업2본부)은 “체계적이고 안전한 캠프,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캠프가 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캠프는 조금씩 꾸준히 변화하여 왔고, 앞으로 시대에 맞추어 변화할 것이다.

이 캠프는 아이들에게 학습의 장을 되고, 진행하는 운영자에게는 캠프를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빠른 결단력 등 기획자로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캠프가 끝나는 날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인하여 UP들이 아이로부터 받은 감동을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할 때, 이 캠프가 왜 26년간 지속되어 왔는지, 앞으로 계속될 유니베라의 역사 속에 왜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떠오른다.

유니베라 캠프는 무료이다. 하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오직 UP들

“traditional percussion music,” which children does not often experience. The program is taught by professors of the departments. “A day of love for culture” Program is known as one of special and unique experience provided by Univera.

The love for human being program is a very special experience in which children can learn sense of unity and attitude in group, cooperation with friends and gratitude to parents, which lead to high self-esteem. The love for nature program shows children how to appreciate the nature and share the benefit with others.

Junyong Jo who was in charge of the project in 2000 said “We focused on safety, giving opportunity to join for more children, and making the camp a special experience.” The camp has been changing with the times, and it will continue to change to match the times.

The camp is opportunity for kids to learn and for those who run the camp as a planner to learn about leadership, an ability to cope with unexpected situation and quick decision making skill. At the end of the camp, UPs are moved by how their kids have grown, and their gratitude toward parents. They thank us for preparing and running the camp, and their appreciation answers the question of why the camp has continued for 26 years and has to continue in the future with the history of Univera.



의 자녀만이 가능하다. 물론 유니베라 캠프는 최고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캠프이다. 그리고 유니베라 캠프는 당장 회사가 성장하도록 수익을 만들지는 못한다. 하지만, UP들 가슴에 유니베라를 사랑하고 믿고 함께 하고 싶은 큰 마음을 만들어낸다. 앞으로도 유니베라 웰니스 푸른 꿈나무 캠프를 통해 많은 UP들이 힘을 얻고 유니베라를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전익표 대리 | 교육기획팀 | 유니베라 한국



웰니스 푸른 꿈나무 캠프 자원봉사자 인터뷰

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재학중인 유아교육과 3학년 김지해입니다.

② 유니베라 웰니스 꿈나무 캠프 (이하 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보고, 선배에게 문의한 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캠프에 여러 번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참여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캠프 동안에 아이들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미래에 유치원에 취직해서 해야 할 일이라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아이들이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어서 여러 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우리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싶어 캠프를 계속 신청하였습니다.

④ 캠프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부모님 혹은 감사하는 분께 편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각 모듬 선생님에게도 편지를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모듬이었던 6학년 남자 친구가 써준 편지를 모든 활동이 다 끝난 후 기숙사에서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손으로 쓴 편지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 시간이 저에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⑤ 캠프에 참여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며, 편지에, 일기장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모듬 선생님이 최고!’,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표현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막내들이 위의 언니 오빠들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어쩔까’, 혹은 ‘고학년인 아이들이 선생님은 너무 어린 동생들만 챙긴다고 느끼진 않을까’ 항상 고민하는 저의 걱정을 뒤로 하고, 서로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⑥ 유니베라에 대한 기업 이미지는 어떤가요?

남양알로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설립하신 고 이연호 회장님이 학교를 설립하시기 이전에 유니베라를 설립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고 이연호 회장님과 관련한 동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학교를 설립한 이유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나니 무한한 믿음,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니베라에 대한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가고 신뢰가 생기는 그런 이미지!

⑦ 캠프를 진행 총괄하는 유니베라 직원들에 대한 인상은요?

유니베라에서 행사를 총괄하신 분들, 거의 다 생각나요. 3년 동안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영의 밤’ 때 아이들 앞에서 보여줄 공연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꾸중도 듣고 했는데, 그때마다 벌 면목이 없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금방 다 잊어주시고 저희 배고플까 밤마다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캠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3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Univera camp is free, but only children of UPs can apply for. Univera camp is not the best, but it is the only place to feel and learn about the nature, human,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The camp does not make money for the company, but UPs who have ever sent their kids to the camp will love and trust the company all the more. I hope that more and more UPs could gain the strength, love the company and be together with it through the camp.

By Ik-pyo Jeon Assistant Manager | Education Planning Team | Univera Korea

Interview of a volunteer at Wellness Kids Camp

①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Jihae Kim, a junior majoring childhood education at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② What made you a volunteer for the Wellness Kids Camp?

I read a notice on the web page of my department, and asked a senior student about the camp.

③ You joined the camp several times. Why?

During the camp, my job was to make contact with the parents of the kids. I am going to be a kindergarten teacher, so I thought this experience will help me in my career, and it was a rewarding experience. I made promise to kids to meet again next year, and volunteered again to keep the promise.

④ What i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during camp?

The children write a letter to parents, or to whom they thank. Some of the kids wrote to their teachers at the camp. One time, I read a letter from a sixth grader at elementary school at the dormitory room after all the activity was finished. And it made me cry. It was such a moving experience to read letters the little kids handwrote, and so it i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to me.

⑤ What is the most rewarding experience during the camp?

They massaged my shoulder even though I did not ask, and write “I love you.” “My teacher is the best!” “I like you the best.” in their letter and their diary. I always worry that the small children might not enjoy the camp because of bigger ones, or bigger kids might think me only caring for little ones, but they really take care of each other.

⑥ What do you think about Univera?

Namyang Aloe! I heard that the founder of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the late Chairman Yunho Lee, founded Univera before the University. I had ever watched video about his life on the university web site. His legacy and spirit behind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ity made me trust the company. That is also the same with the image of Univera. I can totally trust the company!

⑦ What is your impression on the Univera staff who run the camp?

I remember most of the people who ran the camp. Sometimes we were told off because we did not practice enough for the performance for “welcome night,” and we were ashamed and sorry. However, they forgave us soon and gave us bundles of food and encouraged us to make it. I really appreciate them for all.

네이처텍 가정의 날 행사



네이처텍은 2012년 4월 18일, '가정의 날' 행사를 처음 시작하였다. 가정의 날 행사는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한 달에 한번 가정의 날을 정하여 30분 일찍 귀가하는 행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은 가족이나 동료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거나 자기계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는 곧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월 현재 가족의 날 행사는 4번 시행되었다. 8월에는 자녀 초청 행사가 있었다. 네이처텍 직원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면 5시에 퇴근해 가족 또는 직장동료들과 시간을 보낸다. 가정에서 요리하는 아빠가 되기도 하고 딸과 정원을 가꾸는 엄마가 되기도 한다. 어린이 집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

고 신혼생활의 달콤함을 느껴보기도 한다.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은 룸메이트와 시간을 보내고 팀 회식을 하는 팀도 있다.

회사는 가정의 날 행사를 시행한 후 사진을 공모하여 매월 3가정(팀)에게 10만원씩을 지원했다. 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가정의 날 활동도 PPT로 작성되어 월례조회와 에그스를 통해 전 직원이 공유한다. 앞으로 가정의 날 행사가 건실하게 이어진다면 직원과 그 가족의 만족도를 높이는 문화로 굳건히 자리잡을 것이다.

글 | 김태완 | 경영지원팀 | 네이처텍



Naturetech's Family Day Event

Naturetech started holding a "Family Day" on April 18, 2012. The event is part of creating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A family day is set once a month to get off work 30 minutes earlier. The time enables the staff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families or colleagues or for self-development. This will in the end help keep a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The event has been held four times until July. In August, an event to invite the staff's children was held. The Naturetech staff leave work at 5 p.m. every third Wednesday of the month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families or colleagues. Some become a cook for family and others become a gardener. Some also participate in their children's day

care events or enjoy the sweetness of new marriage. Staff residing in dormitories spend time with their roommates and some teams enjoy an eat-out.

As the company started holding the family day, it has provided KRW 100,000 to three families (teams) each month by selecting the best photos of family days through a contest. Those not supported also prepare PPTs of their activities to share them with the entire staff via monthly meetings and intranet EGGs. If holding the family day continues, a culture wherein the staff and their families are both satisfied will firmly settle.

By Taewan Kim | General Mangement Dept. | Naturetech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네이처텍 최초로 자녀초청 행사가 있었다. 지금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등 회사를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정작 가족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행복한 일터를 체험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자녀를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대중교통으로는 회사에 오기가 어려운데다가 아이들이 방학 중인데도 어른보다 더 바빴기 때문이었다. 셔틀버스 시간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일렀고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런데도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25명의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행복한 일터를 체험하였다.

행사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회사 소개 듣기, 아빠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 견학하기, 아빠 엄마와 함께 회사 내에서 사진 찍고 클레이 아트 만들기, 핸드크림 만들어 이름 붙이기, 맛있는 점심 시간, 도자기 만들기 체험(문강도예체험장), 인절미 만들기 체험(문강도예체험장), 선물 받고 귀가하기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실 미취학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도중에 귀가한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A Happy Workplace with the Children

Naturetech held an event for its staff's children on August 14, 2012. The company had held many events so far to create a happy workplace. The company was certified as a Best Family Friendly Management, but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families of its staff visited the company and experienced it. However,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from the start to invite the children. Not only was it difficult to reach the company by public transportation but the children were so busy despite the summer vacation. The shuttle bus time was too early for the children to come; many were also studying in private institutes. Nonetheless, 25 children of middle school to non-school age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experienced a happy workplace.

The event proceeded as follows: An introduction of the company while eating sandwiches, On-the-spot study while fathers explaining, Photo time with family and clay art, Making hand cream, Lunch time, Making pottery and rice cakes (Munkang Pottery Making Hall), and Coming back home with presents of the company.

The program, however, was so heavy for non-school age children that some went home earlier than intended. Despite this, most children actively participat-



- ① 경영지원팀 최수정 대리과 박성수 주임의 아들 박재원 군
Naturetech staff and invited child.
- ② 최혜현 사원이 어린이들에게 생산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Showing the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children
- ③ 생산시설 투어 중에 질문이 생긴 윤현지 어린이
A child asking a question during a tour in the production facilities
- ④ 어린이를 안고 생산시설을 보여주고 있는 김성희 사원
Naturetech staff holding a child and showing her the production facilities
- ⑤ 화장품 시설을 설명 중인 화장품생산팀 이용기 대리
Naturetech staff explaining cosmetics facilities
- ⑥ 클레이로 액자를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
Children making clay frames
- ⑦ 행사를 마치고
Group photo after the event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만끽했다. 특히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이 들리는 이어폰을 쓰거나 바람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에어워셔를 통과하며 신기해했다. 떡메치기도 즐거워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화장품 유회(emulsification) 체험은 안전을 위해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자기도 하겠다며 샘을 내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였다.

아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는 나는 사실 긴장과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고 소리만 질렀다. 그러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특성이 보이고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었다. 아이들도 나를 낯설어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한 손엔 선물(홍삼액 키즈와 문화상품권)을 다른 한 손엔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내년에 또 봐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음 행사 때까지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ed in and fully enjoyed the program. In particular, they were very curious and happy, passing through an air washer that removes dust with wind and using an earphone to listen to the explanation before entering the factory. Pounding with a rice-cake mallet was also another fun activity they enjoyed. The cosmetics emulsification experience was carried out for the older children for safety purposes, but it became so popular that some younger children also wanted to try it.

I was actually worried and anxious because I had never done something with children till then. In the beginning, I was shouting so much to ask them to quiet down. But, I soon realized their characteristics and could meet their needs. The children also identified with me that they soon warmed up and followed me well, calling me a teacher. Watching the kids go back home, holding their parents' hands on one hand and a gift (Red Ginseng Tonic Kids and Culture Gift Certificates) on the other, made me feel proud. Watching these children and hearing them say “see you again next year” will be a scene I will not forget until next event.

글 | 김성희 | 경영지원팀 | 네이처텍

By Sunghee Kim | General Mangement Dept. | Naturetech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꿈꾸며

Dreaming of a Life of the True Value

편집자 주 『에코넷웨이』 기자가 직접 유니베라 대리점을 찾아가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유니베라 부광영업국을 찾은 유니베라 한국 민지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해왔다.

Editor's note A reporter of 『ECONETWAY』 visited a Univera distributor to listen to vivid stories. The reporter named Jihee Min from Univera Korea visited Cheon-an Dream distributor and gave her impressions as shown below.

부광영업국에 들어서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유티들이 달고 있는 이름표였다. 흔히 왼쪽 가슴에 다는 조그마한 명찰이 아니라, 이름과 직급이 크게 적힌 커다란 명찰을 가슴 중앙에 오도록 목에 걸고 있었다. 이유가 무척 궁금해서 인사를 하자마자 부광영업국 김종찬 사장에게 물었다. 이유는 간단했지만 의미는 대단히 컸다. 처음 오는 이들이 유티들의 이름을 쉽게 외우게 하려고 착용한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던 유티들에게 본인의 이름이 불리는 기회를 주고 싶어 그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유티들에게 본인의 가치를 찾게 해주고 있구나!" 김사장의 배려가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 힘겹게 부산까지 찾아가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감싸주었다.

As soon as I entered the Bu-kwang Bright distributor, what caught my eye were the name tags hung around Univera Planners' necks. The tags were not the usual small tags worn on the left breast but large tags worn in the center of their breasts with their names and positions written in large letters. I was curious of the reason why they hang them, so as soon as I greeted Head of distributor, Jungchan Kim I asked him about it. The reason was simple but very meaningful. First of all they hang them for those coming in for the first time at the distributor to easily learn their names by heart. More importantly, it is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have the Ups get called by their names instead of a mother or wife of so-and-so. "The head is working hard to help UPs find their true value even from the seemingly trivial circumstances!" Kim's consideration for UPs lifted up my spirits and made my travel up to Busan on a rainy day worthwhile.

1993년 제대 후 복학한 교양과목 첫 수업에 교수님께서 이런 숙제를 내셨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찾아서 원고지 10장으로 써내라." 당시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하던 나는 자연스럽게 봉사를 주제로 원고를 작성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 후로 정확히 10년 동안 나는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1년 뒤, 10년 뒤가 그려지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완벽하진 않지만 알 것 같다.

A professor in the first class I attended after serving in the military in 1993 gave me homework to "write 1-2 pages about what you really want to do before passing away." Because I was active in a volunteering club then, I naturally wrote about volunteering. However, I did not really know what I really wanted to do with my life that I pondered about it so much. Because I did not know what I really wanted to do, I lived the next ten years suffering from so much stress. However, I am now enjoying a happier life than anyone else because I can picture myself within the next year or ten. Although not completely tangible, I now have an idea of how I should live for what.

① 아침교실을 진행하는 김종찬 사장 Jungchan Kim leading a morning class



I joined Univera in 1996 as a lecturer of Namyang Aloe's education team. After that, I was dispatched in 1998 to the Busan sales headquarters as a sales consultant as part of the company's talent nurturing policy. Until then, I did not feel the corporate vision and mission connected to my life. However, I have now come to realize what they truly mean, thanks to having met many colleagues at Univera and mentors such as distributor presidents. Then in the spring of 2003, something strange happened. While singing the company anthem during a monthly meeting, I suddenly felt each cell in my body trembling, even though I was very tired from having drunk too much the previous day. It was as if I had rediscovered my life in the company, which I had previously found boring

1996년 남양알로에 교육팀의 식품 강사로 유니베라에 입사한 후, 1998년에 회사의 멀티플레이어 양산정책으로 부산영업본부로 발령받아 영업 컨설턴트로 근무할 때까지 회사의 비전과 미션은 나와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약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니베라에서 여러 선배들, 대리점 사장님들 같은 많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 봄 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월례조회시간에 사가를 부르는데, 전날 숙취로 지쳐 있는 내 몸 세포 하나 하나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구체적인 동기부여 없이 똑같은 일을 지루하게 하며 회사를 다니던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30여 년간 삼켜 쌓아온 지식과 경험, 흩어져 있던 감성과 느낌들이 내 몸 속에서 하나의 빛나는 수정으로 조립되는 듯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느껴지지 않았던 내 인생의 비전과 가치가 눈 앞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 날 이후로 내 삶의 화두는 '가치'였다. 2004년 러시아에서 직원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병훈 총괄사장님께서 첫 시간 야외 강의를 하셨다. 말씀을 듣는 중에 공감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 것은 '가치'였다. "우리 회사 사장님과 내가 다른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만, 같은 철학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해하는데, 갑자기 내게 질문을 던지셨다. "김중찬 대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이에 거침없이 "현장에 계시는 유피님들이지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유니베라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구요."라고 답을 했다. 나의 답이 곧 총괄사장의 답이었다. 그 후 유니베라 선배들과 대리점 사장님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취적인 논의였다.

보통 회사의 철학과 비전을 개인의 철학과 비전에 일치시켜야 열정이 생기는데, 2009년 가을 그 일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제안이 찾아왔다. 지금의 대리점 운영 제안을 받고 순간 고민에 빠졌지만, 결정하는 시간은 딱 10초였다.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의 행로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민하는 10초 동안 뇌리를 스친 생각은 '진정한 가치의 직접적인 실현'이었다. 십여 년 동안 대리점 컨설팅을 하던 터라, 대리점 사업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업팀장 시절부터 갖고 있던 세일즈 철학이

without any specific motivation. It was as if the knowledge and experiences I had accumulated over the last 30 years and the dispersed emotions and feelings were being assembled into a shining crystal inside my body. I began to see a vision and the value of my life that I had hitherto not felt because they were scattered about.

Since then my life's point has been "Value." During a staff workshop in Russia in 2004, Chairman and CEO Bill Lee gave his opening lecture outdoors. While listening to his lecture there was one theme I could empathize with: values. "Although our company's chairman and I work in different spaces, we have the same philosophy," I thought and realized and was proud of it. When suddenly the chairman asked me a question, "Who do you think we are foremost working for?" To this, I readily answered, "It is the UPs working on the field. Univera needs to work hard to change their lives." My answer was the same as that of the chairman. Since then, my conversations with Univera colleagues and distributor presidents have been forward-looking debates about the direction our company should work toward.

One usually finds the passion to work when the corporate philosophy and vision match that of the individual's. In the fall of 2009, I was proposed to do something on my own. I was proposed to run for the distributor position, and although I pondered at it first, it took me only ten seconds to decide. It is not easy to change jobs but what passed through my mind during those ten seconds was the "direct realization of true value." Because I had provided consultation to distributors for about ten years, I did not think it would be difficult to be one. I had a sales philosophy I had held on to since working as a sales team leader. "Imagine! And you will definitely realize it." Another is "Change or Die." I wanted to instill these two thoughts into UPs working with me. We shouted these two mottos every morning with one voice and shared the goal of becoming

② 빙고게임을 재미있게 하는 유피들 UPs enjoying a bingo game ③ 부광영업국 입구 Entrance of the distributor ④ 부광영업국 유피의 목표 달성 그래프 Goal Results Graph





⑤ 사랑하는 가족사진 Family photo ⑥ 나의 희망 자녀들 My children of hope ⑦ 2011년 영업국 승격으로 미국 연수 시, 컨벤션 행사에 참여한 유니베라 미국 어소시에이트와 함께 With an associate during a training visit in Univera USA thanks to the distributor's level-up in 2011



있었다. 하나는 “상상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이며, 또 하나는 “Change or Die”이다. 이 두 가지 철학을 나와 같이 하는 대리점 식구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호 삼아서 매일 아침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09년 개업 당시 대리점의 모든 식구들과 2014년 전국 최우수 대리점을 될 것을 목표로 공유했다.

2010년 10월, 1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늘면서 지사에서 영업국으로 승격하고, 400여 개 대리점 중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광대리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유포들에게 본사 출신 사장이 좀더 나은 부광대리점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유포들의 성향과 대리점의 분위기를 내가 이루고 싶은 가치에 가깝게 이끌기 위하여, 보통 간부유포가 진행하는 아침교실을 거의 매일 사장인 내가 직접 진행했다. 점차 유포들의 마음이 하나의 가치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2013년에 전국최우수 대리점이 될 것 같았다. 대리점 내에 문화, 비전, 목표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성장할 때 나타나는 법. 기존에 있던 유포들 중 부정적이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우리 대리점의 가치와 함께 가지 못하던 분들이 있었다. 아침교실 및 상담과 교육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했으나, 그들은 함께 하지 못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대리점의 장래를 위해 2011년, 조직의 1/3을 정리하였다. 그 영향으로 대리점 전체가 흔들렸고, 이에 따른 매출 하락과 조직의 누수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영업 컨설팅트였을 때 본사에서 받았던 위기극복, 리더십, 마케팅, 전략, 다양한 대리점 사례연구 등의 교육들을 되짚어 봤다. 그 당시에는 대리점 컨설팅을 할 때 적용했지만, 언젠가 대리점을 직접 경영할 때 필요할 것이라 느껴서 본사에서 제공한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효과가 있었다. 선배 대리점 사장님들을 만나 공부를 하고, 수영장을 다니면서 체

the best distributor nationwide by 2014; I started with my UPs in 2009.

Within one year, last October 2010, our sales doubled that our distributor's level was upgraded. Our distributor was ranked 45th among 400 or so distributors. To the UPs who had fallen into mannerism as having worked for a long time at the Bu-kwang Bright distributor, I, as a president with experience in Univera, instilled in them the creed to be better distributors. To draw the tendencies of the UPs and the ambience of distributor closer to the values I wanted to realize, I personally led morning classes usually led by executive UPs. Slowly, the UPs came to share the same values. If we continued this trend, becoming the best distributor in Korea would seem highly likely by 2013. The distributor culture slowly changed in sharing my vision and goals.

However, a crisis always hits during rapid growth. Some of UPs felt negatively about it and neither followed the basic principles nor shared the distributors' values. Through morning classes, consultations, and trainings, I tried to change their mind, but they did not follow. I therefore fired one-third of UPs in 2011 for a better future although it was difficult at first. The entire distributor was shaken because of it, sales dropped, and the drop became a source of stress. But I gathered myself up and went over various trainings and distributor case studies on overcoming crises, leadership, marketing, and strategy I had learned while working as a sales consultant in Univera. Back then I had applied them only for distributor consultations but had felt I would one day need them to personally manage a distributor that I had studied well during the trainings. I studied with senior presidents of distributor, got fit by swimming, and trained my heart so as not to fall



⑥ 2011년 영업국 승격으로 미국 연수 시, 캐나다 여행안내인에게 부광영업국의 인사법을 가르치는 김종찬 사장 Teaching the greeting method of the Bu-kwang Bright distributor to a Canadian tour guide during a training visit in Univera USA thanks to the distributor's level-up in 2011 ⑦ 2010년 거제도 단체 여행 Group photo of UPs during a trip to Geoje-do in 2010



력을 기르는 한편,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훈련을 했다. 본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험과 판매와 조직관계에 대한 내공이 있다 생각하며,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신념 아래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직 기대만큼 조직이 성장하진 않았지만, 위축되거나 막막하게 미래를 걱정하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대리점이 잘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를 꾸준히 조성하여 문화로 만들고, 동일한 문화를 바탕으로 대리점 식구들이 비전을 구축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전력과 기쁨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로 비오는 날에 출근율을 높이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등수 별로 상품을 걸고 빙고를 한다. 밖에서 보면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으로 배포하는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중간에 공지사항을 곁들이며 유포들에게 집중을 유도한다. 놀이와 학습을 접목시킨 좋은 예로서 대리점의 판-경영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대리점 문화를 만들고 유포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매출을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와 같이 일하는 소중한 부광영업국 식구들은 모두 즐겁고 행복하다. 부광영업국의 가치기준은 높은 매출이 아니라 유포 중심과 사람 중심이다.

우리 대리점 식구들이 내게 건네는 말씀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사장님과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나쁘게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게 되고, 제가 평생 일한다고 내쫓지 않으실 거죠?" 이제 다시 시작이다. 뜨거운 유니베라 대리점에서 만들어보리라 다짐한다. 난 유니베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유니베라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글 | 김종찬 사장 | 유니베라 부광영업국

apart from small failures. I pledged not to be shaken, based on the creed that this was what I was best at, having worked for ten years in Univera and building much experience in sales and organizational relations.

Although we haven't grown as much as expected, I no longer shrivel or blindly worry about the future because I know how to lead the distributors well. Although it takes long,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strategies and methods to steadily create a positive ambience and culture and build a vision with UPs based on a shared culture. For example, to liven up the mood and to raise the attendance rate on rainy days, we held bingo events that would get them to win prizes. It may seem just like a simple fun game. During the time I explained to them about the products given as prizes together with official announcements. As an example of integrating learning with play, it helped create a fun business management culture in the distributor. I believe it is my duty to create such a culture of the distributor and spread it to the UPs. Although our sales are not yet something to boast about, the UPs of Bu-kwang Bright distributor working with me are all happy now. Our values are not just focused on raising sales but in making UPs enjoy working.

What my UPs tells me teaches me how to live for what. "I am happy to work with you. I changed a lot. I stopped behaving or thinking negatively. You won't fire me if I want to work here for the rest of my life, will you?" We are now starting all over again with the pledge to create an exciting Univera distributor. I love Univera. My life's value is being created through Univera.

By Jungchan Kim Head of distributor | Bu-kwang Bright distributor

스포츠라이트를 받을 사람

The Ones in the Spotlight

편집자 주 2005년 김종민 사진작가는 이병훈 총괄사장의 의뢰를 받아 미국과 멕시코의 알로콜 농장으로 촬영을 나갔다. 다음해 완공할 에코넷센터에 진열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후 김 작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농장 사진을 더하여 'One Truth 오직 하나의 진실'이라는 사진집을 냈다. 다음은 그의 알로콜 멕시코 농장에 대한 인상기이다. 사진집의 글과 2009년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고 요약하여 편집했다

Editor's note In 2005, photographer Jongmin Kim took pictures of Aloecorp farms in the USA and Mexico at the request of Chairman and CEO Bill Lee. The photos were going to be displayed in the ECONET Center which was to be built by the following year. Afterwards, Kim published a photo book "One Truth" with more photos from ECONET farms in China and Russia. The following is his impression of the Aloecorp farm in Mexico, quoted and edited from his essay of the photo book and his interview in 2009.

“멕시코다. 황량한 대지 위에 죽 칼로 자른 듯한 1차선 왕복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길에는 차에 치인 야생동물들이 간간히 보일 뿐 인적은 없다. 죽은 줄 알았던 동물이 길에서 날아올랐다. 깜짝 놀랐다. 검은 독수리. 멕시코 국기에 등장하는 독수리였다. 수목들은 키가 크지 않고 잔가지가 매우 많으며 옆으로 퍼져 바람결대로 자랐다. 5시간 정도 달리니 구릉지대가 나오고 이제 산들이 보인다. 듽성듬성 높지는 않지만 옆으로 평평하게 펼쳐진 산이다. 한마디로 이곳의 풍경은 대단히 수평적이다.”

“드디어 수평선을 뚫고 저 멀리 분화구처럼 보이는 산다운 산이 보인다. '세로 텔 베르날', 지름 5000미터, 높이 300미터의 산인데 분화구는 아니다. 평평한 땅에 우뚝 솟은 산은 탐피코 항구에서도 보여, 예전에 인디언들이 내륙의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고 한다. 그 아래 최종 목적지 알로에 농장이 있다.”

“처음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펼쳐진 생경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넓은 농장에 흠어져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공기, 그

“It was now in Mexico. I drove for some time along a two lane road (one lane headed in each direction) which almost looked like something a giant knife had carved straight into the desolate land, which showed no signs of mountains anywhere. There was no visible sign of human life, only the occasional road kill of local wildlife on the road. One of the carcasses, thought to be dead, suddenly flew up from the road. I was completely startled. It was a black eagle; the kind that appeared on the Mexican national flag. The trees were not tall, and had many small branches that grew out sideways in the way the wind instructed them to. After five hours of driving along, I reached hilly terrain and could now glimpse the first signs of mountain. These mountains were scattered here and there and were not very high but kind of leveled out horizontally. In a word, the landscape here was extremely horizontal.”

“Finally after driving through the endless horizon, I viewed in the far distance something that you could call a real mountain, also resembling a crater. Standing high aloft the flat terrain it could be viewed from the port of Tampico, and thus was valued by the ancient Indians as an important landmark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from the port towards the inland. Beneath this landmark, lied my final destination, the aloe farm.”

“When I first arrived at the aloe farms of Tampico I did not have any ideas as to what I would photograph or how I would go about photographing it. I merely stored into my camera, images, of the strange and unfamiliar sights that were displayed in front of my eyes. Then one day, I suddenly began to see the separate images of each individual



곳에서 알로에와 하나가 된 사람들, 노동과 생산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얼굴들. 이들의 숭고한 노동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훗 한 번 밟기 어려운 도시인들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농부들은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않았다. 기뻐 보이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찍고 싶었다. 증명사진처럼 눈과 눈으로 마주 보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었다. 다만, 조명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고 싶었다. 무대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자연이라는 무대에 장엄하게 서 있는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었다. 보자기를 썩은 사진기로 찍자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나누어 가졌다. 농부들이 모여 사진을 보며 웃었다. 그 사진은 멕시코 작은 시골집 벽에, 아니면 낡은 앨범 속에 짧은 순간 함께 했던 동양에서 온 사진가를 기억하는 거울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

person, working throughout the vast farmland. There beneath the blazing sun, the air so hot and suffocating, were the people who had become one with the aloe which they were harvesting. Faces which represent the most primitive and original form of man's everyday life; labor and production. It is the noble work of these laborers which make the lives of the people who live in cities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and have no opportunity to step on real soil, plentiful and healthy.”

The farmers did not look particularly splendid or gaudy. They neither look happy nor sad. “Just stand still.” I wanted to take a photo of them just as they were. I wanted to take a picture of them face to face just like a photo in driver's license. What I wanted to do was to shed a spotlight to people who has never been in light. Like a pin-point light on the stage, I would shed a light on the farmers who stan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nature. It takes time to take a picture with a hooded camera, so I took Polaroid pictures first and gave them out. The farmers looked at the photos and grinned. The pictures would be hanging on the wall of their country cottage in Mexico, or in their aging albums, as a memento of a photographer from the Far East. At least, I expect so.

에코넷 북클럽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헤르만 헤세

ECONET Book Club

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Hermann Hesse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제목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당신을 위한 책
저자 스티브 도나휴 저 | 고상숙 역
출판사 김영사



Shifting Sands: A Guidebook for Crossing the Deserts of Change

Title Shifting Sands: A Guidebook for Crossing the Deserts of Change
Author Steve Donahue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막을 건너는 것과 더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을 타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 인생을 살아간다면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며 목적과 내용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산의 정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갖는 것이 유용합니다. 즉, 정해진 코스와 계획대로 인생을 걷기보다는 방향은 하더라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하고,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인생의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가장 중요하고 의미 깊고 즐거운 순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People often use climbing the mountains as a metaphor to describe life. But reading this book made me think that life is more like crossing the deserts than climbing the mountains. The most important moment for those climbing the mountains is the moment right before reaching the peak. We may live life pursuing a goal, but just reaching the goal is not important. This book made me look back into my life to check if I have lived my life by only looking at the top of the mountains, valuing results instead of the ultimate goal and contentment in life.

"Follow a Compass, Not a Map."

In a life's journey such as crossing the deserts, a compass is more useful than a map. That is, instead of living life on a decided course and plan, it is better to use a compass to keep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even if we get lost at times.

"Stop at Every Oasis"

We need to stop and rest when we find an oasis to regain energy, look back on the treaded path, correct what needs to be corrected, and meet others travelling on the same road. An oasis provides space to practice living a diligent life each and every moment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사막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 “모래에 갇히며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정체된 상황은 바로 우리의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야 다
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만 빼면 꼬인
인간관계의 사막에서 헤어 나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치유의 오아시
스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네 번째 방법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인생의 위기에 빠지면 일찍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에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서는 빠르게 구조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어느 누구도
나 대신 사막을 건너줄 수는 없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다섯 번째 방법 “캠ป์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우리에게는 따뜻하고 친숙한 캠ป์파이어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집, 그리고 직장, 인간관계 등 우리는 확실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위험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캠ป์파
이어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섯 번째 방법 “허상의 국경선에서 멈추지 마라”

인생에 있어서 경계선은 중요한 전환점이며 진실의 순간이고 내적으
로 엄청난 성장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
할 때,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허상의 국경선에서 멈춰버
리면 내 안의 열정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가정과 믿
음에 도전하는 것은 바로 국경수비대의 허세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
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몇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를 따라 가기만 한다면 자신에게는 성공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설정한 것처럼 질
서 정연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방황은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
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
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막을 건너는 인생 여정
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은 신념이자 가치관이라 생각합니
다.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건너서 따라가는 방향은 깊은 의미가
있고 명료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글 | 조영일 과장 | 경영지원팀 | 네이처텍

meaningful, and enjoyable time.

“When You’re Stuck, Deflate”

The situations that force us to stop mean that we need to deflate our bloated ego to move on. If we deflate our ego even just a bit, we can get out of tangled interpersonal relations and go to a healing oasis to communicate with others.

“Travel Alone Together”

When we face a crisis in life, we need to ask for help early on. If not, we risk falling into a deeper crisis. When we can’t solve problems alone, we should immediately ask for help. But in the end, no one can possibly cross the deserts on behalf of us.

“Step Away from Your Campfire”

Everyone has warm and familiar campfires. We want certainty and repetition such as family, friends, home, work,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e don’t like ambiguity and risk. However, we need to step away from campfires to cross the deserts. That is the starting point.

“Don’t stop at False Borders”

In life, borders can be turning points and truthful moments. They provide us the opportunity to greatly grow and heal internally. When we can’t move forward and we stop at false borders without fully exercising our potentials, the passion in us will also die out. Challenges to false supposition and belief are equal to challenges to bluff of border guards.

Most of people believe that if they were to live life with certain goals and worked hard to achieve them, their success would be guaranteed. However, life does not usually proceed in an orderly manner as planned and set. It will frequently turn out quite differently from our plans. We feel anxious about this uncertain future not because we don’t know how to reach our goals but because we don’t know what we really want and where we exactly are. In crossing the deserts of life, it is our creed and values that will guide us like a compass. The path which we chose to march to cross the deserts of life should be deeply meaningful and clear. It should clearly include the purpose and meaning of our lives and the reason we exist.

By Youngil Cho Manager | General Mangement Dept. | Naturetech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Things We Can See Only When We Stop

제목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자 헤민
출판사 쌤앤파커스



Title Things We Can See Only When We Stop (Korean Edition)

요즘 계속 바쁘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하나씩 해결해 가도 이상하게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으니 늘 헉헉거리며 달리는 말 같다는 생각을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은 한가하게 노닐기도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헉헉거리며 달려야 할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온라인 서점 사냥을 나갔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베스트셀러 1등이란다. 솔직히 나는 이런 책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느 상황에 놓이든 다 말이 되는 것 같은 위로성의 말은 들어나마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제목이 확 와 닿았다.

그래, 조금 놓아보자. 조금 쉬어보자. 얼른 '바로 구매'를 눌렀고, 요슬럼프는 정확히 하루 만에 내 손에 이 책을 대령했다. 우창헌 작가의 신기루 같은 그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평온한 세상을 눈앞에 펼쳐 놓았다. 책의 표지부터 나의 마음을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한 가족인 듯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나란히 서있는 그림이다. 책 표지만 봐도 '아~ 덧없는 것에 얽매어 가슴 졸이지 말고 그냥 좀 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펴자마자 헤민 스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남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나만의 빛깔을 찾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이다. 절로 고개를 숙이며 함장인사를 하고 책을 펼쳤다. 프롤로그 제목이 "잠깐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이다. 맞다! 내가 바쁜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구나. 나를 내 인생의 바깥에 놓고 생활했었구나 싶었다. 스님은 나에게 말씀했다. "과

I am busy nowadays. The things I need to do are piling up. Despite taking care of each of them, I cannot shorten my list. I feel like a running horse gasping for air. Around me, people seem to be enjoying a leisurely life. Why is it I am the only one panting? Wanting to take a break, I started surfing on an online bookstore. I found out that the "Things We Can See Only When We Stop" was the top bestseller. Actually, I don't like this kind of books because I find it useless to listen to comforting words that could fit in any situation. But on that day, the title caught my attention.

Yes, let me stop for a while. Let me take a rest. I immediately bought the book and it was delivered in one day. Laid before me was a mirage illustration of artist Chang-heon Woo showing a peaceful world that does not likely to exist in the real world. The cover helped me escape from reality. The drawing of it showed three people, seemingly a family, holding hands together. Just by looking at the cover, I had an impression that "I should not get anxious and suffer from so many things in vain, but take some rest." As soon as I opened the book, monk Haemin's words comforted me.

"Don't mind the others and find your unique color. You are the most precious person in the world." I naturally bowed and opened the book. The title of the prologue was "Stop for a while and learn to love yourself." Yes, this was it! My busy life was not for me but for others. I lived outside my life, I thought. The monk said, "Stop ruminating on the past or imagining an uncertain future and take the time to hold your breath." I was

거를 반추하거나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는 마음을 현재에 잠시 정지해 놓고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정지시켜 놓고 나를 나에게서 유체이탈 시키고 나를 ‘관조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려주셨다.

이 책은 해민 스님이 트위터에 쓴 글들이 대부분인데,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글은 “마음이 바쁘면 그 바빠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이 짜증을 내면 짜증내고 있음을 알아채고 화가 나면 화내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챌은 바쁨, 짜증, 화에 물들어 있지 않아 아는 순간 바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작용 자체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이다. 바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원망하고, 도와주지 않는 주변에 대한 불평,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리다니... 그 순간 나는 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나의 상황을 벗어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스님의 짧은 말씀에 내 영혼에 1톤 정도의 충격이 온 것 같았다. 이 외에도 “난로를 대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 말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과 “좋은 자신을 더 아프게 때려야 멀리까지 그 소리가 퍼 집니다. 지금의 힘든 노력이 없으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

좀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라는 말씀. 오늘로써 나는 조금 덜 바빠질 수 있을 듯하다. 방금, 스님의 트위터를 팔로우했다. 스님의 보석 같은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겠다고 다짐하고 책을 조심스레 닫았다.

글 | 이재윤 | 사업1본부 | 유니베라 한국

instructed that to stop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and to take the time to “contemplate” myself out of my body was what I needed to do from now on.

The book was mainly composed of his writings on his Twitter account. But the words that touched me the most were “If your heart is busy, realize it. If you feel frustrated, realize it and if you are angry, realize it. Realizing these feelings of busyness, frustration and anger will enable you to escape from them at that time of realizing, because the process of realizing in itself is originally clean.” My heart had been filled with resentment to situations that made my life difficult and with complaints and hatred against those people who did not help me. Realize that heart... I suddenly felt as if I had the other eye to watch myself.

Before reading this book, I had never imagined myself out of my situation. But the monk’s few words seem to hit on my soul by a ton of weight. Other words such that “Just like dealing with a fire, don’t get too close or far, and keep an appropriate distance from anyone.” or “The more painfully a bell is hit, the further the sound spreads out. Without the arduous efforts on today, you cannot move the world.” comforted my heart.

They all seemed to tell me to love and understand myself better. Maybe today, I can spend a less busy day. I just followed the monk’s Twitter. I carefully closed the book and promised to remember the precious words of the monk.



By Jaeyoon Lee | Business Division 1 | Univera Korea

〈에코넷 북클럽〉은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만듭니다. 긴 글이 아니라 간단하게 제목만을 알려 주셔도 좋습니다.

에코네서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입니까?

에코넷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책을 편집실로 알려주세요.

이메일 minsun@namyangglobal.com 커뮤니티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ECONET Book Club〉 is waiting for your recommendation. You do not have to write a long article.

You can just inform us of a title of a book. What would you like to recommend right now?

Please tell us about your interesting reading experience, and w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fellow ECONETians.

E-mail minsun@namyangglobal.com



El Bernal de horcasitas

El Bernal de horcasitas es el emblema de Tamaulipas ya que es la única sierra que se encuentra aislada de la zona montañosa su altura es de 820 metros sobre el nivel del mar. Cuentan las personas que hace años una avioneta se desplomo en el cerro del Bernal ya que el cerro tiene magnetismo y la descontroló es por eso que se estrelló con el cerro.

Cuando era pequeño le pregunte a mi abuela sobre el Cerro del Bernal, sobre sus historias y me conto que el cerro del Bernal era un volcán inactivo, que en cualquier momento hará erupción, pero no será de fuego si no de agua y el pueblo de Gonzalez quedaría cubierto de agua. En la subida del cerro existe un ojo de agua el cual es agua dulce y fresca, las personas dicen que esto posiblemente se deba a que en el centro del cerro exista más agua y busca una salida, y por eso también, dicen que es un volcán inactivo pero de agua.

Mucha gente dice que el cerro del Bernal es un peligro para excursión ya que existen muchos peligros como animales salvajes y es peligroso subir hasta la parte más alta del cerro ya que si no saben escalar corren el riesgo de caer. Varias personas comentan que mucha gente desapareció al tratar de llegar a la cima.

Hace tiempo comentaron que un grupo de turistas extranjeros decidió salir de excursión hacia el cerro y se perdieron, jamás se supo algo de ellos, dicen que el cerro se los trago ya que ni sus pertenencias, ni nada encontraron de ellos, es por eso que mucha gente tiene miedo salir de excursión hacia el cerro porque no saben si regresaran.

By Carlos Maldonado Comprador | Producción |
Aloecorp de Mexico





The Bernal de Horcasitas better known as “Cerro del Bernal” is the emblem of the state of Tamaulipas, it is the only mountain that is isolated from the mountain chain, and its height is 820 meters above sea level. People says that once, many years ago a small plane crashed into the hill of “Cerro del Bernal” because of the magnetism that exists around this mountain.

When I was little I asked my grandmother about stories of “Cerro del Bernal”, and she told me that this mountain was a sleeping volcano that could eventually erupt at any time, not with fire or magma, but water instead and Gonzalez Town will be totally covered by water. On the way up to the hill there is a fountain which is fresh and cool, people say this may be because in the middle of the hill there is water and it looks for a way out, so that’s why people believe that Cerro del Bernal is a sleeping volcano of water.

Many people say that the Cerro del Bernal is dangerous to hike as there are many dangers like wild animals such as panthers and others. It is unsafe to climb to the top of the hill because if people do not know climbing they are at risk of falling down. Some people commented that many persons disappeared while trying to reach the hill.

Some years ago there was a group of foreign tourists decided to go hiking the hill and they just disappeared, never knew anything about them, people says that the Cerro abducted them since neither their possessions, nor anything were found, so that’s why many people are afraid of hiking the hill because no one knows if they will return. So we can dream it but do not try climbing.

“세로 델 베르날”(베르날 산 혹은 베르날 언덕)로 더 잘 알려진 Bernal de Horcasitas(굳이 번역하자면 오르까씨따스의 베르날)은 따마울리빠스 주의 상징이다. 이는 산맥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작은 산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높이는 해발 820미터에 불과하다. 오래 전에 작은 평원이었던 곳이 지각 변동으로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는데, 지금도 산의 주위에는 주변보다 더 강한 자기장이 있다고 한다.

내가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이 산에 대해 이야기하신 걸 기억한다. 이 산은 휴화산인데 화산 폭발이나 마그마 분출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연히 분출할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물로 인하여 곤살레스 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될 거라고 하셨다. 산의 중턱에는 맑고 시원한 샘이 있는데 이 샘의 위치가 이 산의 중간쯤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믿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산이 하이킹 하기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웬더나 다른 위험한 동물들이 산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도 하지만 산이 너무 가팔라 정상에 도달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등반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등반 중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산에 오르다 도중에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몇 년 전에는 일군의 외국인 여행객들이 이 산에 하이킹 하러 들어 갔다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혹자는 이들이 유괴되었다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소지품이나 그 밖의 것들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이 산을 오르기 어려워하는지도 모른다.

DELK, EL DULCE SABOR DE LA VIDA

Mi nombre es Omar Orozco, y trabajo para Aloecorp de Mexico desde hace ya algunos años. Sin embargo, en mis tiempos libres participo de un trabajo familiar el cual es llamado como apicultura en donde mis padres dedican al menos el 90% de sus actividades a las tareas de este trabajo. Desde 1990, mi padre se vio envuelto en la apicultura de una forma poco activa y prácticamente solo como un pasatiempo.

El ciclo de vida de una abeja es muy interesante, considerando que viven solo 45 días y que son la fuerza de trabajo de la colmena. La organización, con la que se estructuran es sorprendente, puesto que a lo largo de su vida una misma abeja cumple diferentes funciones como limpieza y recolección, pueden viajar hasta cinco kilómetros para exploración y reconocimiento del lugar para encontrar agua y flores para extraer su polen y su néctar para convertirlo en Miel. No obstante, necesitamos ser cuidadosos y tener precaución al estar cerca de una colmena, ya que su agresividad para defender la colmena pueden poner en riesgo la vida si somos atacados por ellas. Es por ello que durante el paso de los años, el interés familiar sobre las abejas, su forma de trabajo, organización y el fruto de su trabajo creció entre los integrantes de la familia, aprendiendo de ellas y capacitándonos constantemente para su manejo, así como las técnicas para el aprovechamiento de las abejas y la diversificación de los productos de la colmena creando derivados que potencializan los diferentes beneficios de la Miel, polen, propoleo, Jalea Real, etc.

A raíz de esta diversificación de productos, la comercialización de los productos empezó a llevarse a cabo y con ello nació DELK que es el nombre de nuestra PyME (small bussiness). Mi padre es quien se encarga en la mayor parte de las actividades del campo tales como recolección de miel, limpieza de cajones, alimentación de las colmenas, etc. Y la elaboración de los productos tales como jabones, multivitaminicos, etc son elaborados por mi madre, quien se ha capacitado constantemente para aprender las técnicas para la

elaboración de los productos con la mayor calidad posible.

Durante todos estos años no todo a sido sencillo, tiempos difíciles han sucedido y cada año se espera mas difícil que el anterior, ya que día a día los problemas de la deforestación acaban con los espacios de las abejas, los insectos de mayor importancia en el ciclo reproductivo de las plantas a través de la polinización, esto como consecuencia, la cosecha de Miel y sus productos son cada vez más escasos. La africanización de la colmena, fue otro tiempo difícil en el cual las abejas sufrieron un cambio genético en la mezcla de abejas africanas y otras razas, surgiendo una raza hibrida más agresiva que otras razas de abejas cambiando radicalmente el esquema de trabajo de los apicultores de muchas partes del mundo, y particularmente en nuestros apiarios.

Actualmente los trabajos necesarios para la cosecha son una larga lista, entre ello, limpieza de cajones, instalación de tratamiento a las colmenas, inspección de la calidad de la colmena y no menos importante la certificaciones de inocuidad, programas a los cuales estamos adscritos para garantizar la calidad del producto.

El día de hoy, nuestros productos son llevados a diferentes partes por personas quienes los han probado, y las ganancias de las ventas son reinvertidas especialmente para el mantenimiento y alimentación de nuestros apiarios, adquiriendo abejas reinas de mejor calidad y menos agresivas para mejor la genética de las nuevas crías, vitaminas para las abejas y alimentos nutritivos para ellas, así como medicamento para tratarlas de enfermedades y hacerlas más productivas y más resistentes a enfermedades.

Creo firmemente que la recompensa de este trabajo siempre está, no solo en nuestra mesa, sino también de las personas quienes confían en nosotros para endulzar sus días.... Puesto que para mí, no existe experiencia más dulce que la que se tiene consumiendo la Miel de colmena.

By Omar Orozco Lopez supervisor | Sistemas | Aloecorp de Mexico

My name is Omar Orozco and I work for Aloecorp since some years ago. However, in my free time participate of a family job which is called apiculture where my parents dedicate almost 90% of their activities to the task of this job. Since 1990, my father was involved in the apiculture just like a hobby.

The life circle of the bee is very interesting, considering living 45 day and they are the workforce of the beehive. The Organization which is structured is surprising because throughout her life the same bee fulfills different functions such as cleaning and collection. She can travel up to five miles for exploration and appreciation of the place to find water and flowers for their pollen extract and nectar to make honey. However we must be careful and take with caution if we are near a beehive, its aggression to defend the hive may endanger life if we are attacked by them. That is why during the passage of the years, my family has been interested in bees, how they work, organization and the fruit of this work grew among family members. We learn them and have got trained constantly its management and techniques for exploiting bees and diversification of bee products creating derivatives that potentiate the various benefits of honey, pollen, propolis, royal jelly, etc.

Following that product diversification, we started marketing and DELK was born which is the name of our small business. My father is in charge of the farm activities such as honey harvesting, cleaning drawers, feeding of hives, etc. The development of products such as soaps, multivitamins, etc, is made by my mother, who is constantly trained to learn the techniques for developing products with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During all these years everything hasn't been easy. Hard times have happened and every year it is expectedly more challenging than the last. Every day due to the problems of deforestation, the spaces for the be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sects in the reproductive cycle of plants through pollination, are finishing. By the result, harvesting honey and its products are becoming scarce. The Africanization of the hive was another difficult time in which the bees had a genetic change in the mix of African bees and other races, emerging a hybrid race more aggressive than other breeds of bees, changing radically the scheme of work of beekeepers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 our apiaries.

Currently the work needed for the harvest is a long list, among this, cleaning drawers, installation hives treatment, quality inspection of the beehives and not least important, the safety certifications, programs which we are subscribed to ensure product quality.

Today, our products are carried to different parts of people who have tried, and profits from sales are reinvested especially for maintenance and feeding of our apiaries, acquiring better quality queen bees less aggressive and better genetics new offspring, vitamins for bees and nutritious food for them as well as medicine to treat diseases and make them more productive and more resistant to diseases.

I firmly believe that the reward of this work is not only at our table; also it is in the people who trust us to sweeten their days... As for me, there isn't experience sweeter than that is consuming the honey beehive.

By Omar Orozco Lopez supervisor | IT | Aloecorp Me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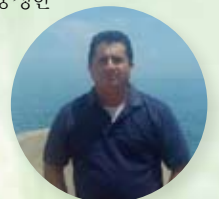


저는 오마르 오로스코입니다. 2007년부터 알로콥에서 일하고 있지요. 제 부모님께서서는 1990년부터 양봉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꿀벌의 수명은 보통 45일이고 청소나 꿀 모으기 등 서로 다른 일을 맡습니다. 벌은 물이나 꽃을 찾아 주변 5마일까지 날아갑니다. 벌집 가까이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협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지요. 양봉 규모가 조금씩 늘면서 벌꿀, 꽃가루, 밀랍, 로열젤리 등, 제품이 다양하게 구비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가족 회사인 DELK를 일구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벌통 청소, 관리 등 작업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배운 기술을 응용하여 비누와 비타민제 등을 만드십니다.

이 모두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금도 새로운 어려움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가령 해마다 개말 때문에 숲이 줄어들 벌꿀의 수확이 줄었습니다. 벌집의 아프리카화도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아프리카 벌과 다른 종의 벌이 섞인 사나운 변종 벌의 출현으로 양봉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좋은 벌꿀을 채취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벌통 청소, 벌집 설치, 꿀벌 품질 관리, 안전성 인증 프로그램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좋은 제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윤은 다시 양봉에 투자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주는 보상은 우리 가족의 풍성한 식탁뿐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글 | 오마르 오로스코 팀장 | IT | 알로콥 멕시코
번역 | 정동현 부장 | 관리부 | 알로콥 멕시코

국민훈장 모란장



The Moran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1997년 4월 7일 제 25회 보건의 날에 고 이연호 회장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알로에 산업을 선도하며 ‘국민보건향상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초대 회장은 고 이연호 회장, 당시 회장은 남승우 풀무원 사장이었다)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작성한 공적조서를 보면, 고 이연호 회장은 “알로에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를 창설하여 식품공전 등재, 사전검사제도, 판매원 위생 교육 실시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

공적조서의 세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농장 개척, 알로에연구재단(Aloe Research Foundation) 설립, 국제알로에기준심의회(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천연약물학국제학술대회, 알로에신약개발프로젝트(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 후원 등이 있다. 또한 공적조서는 고 이연호 회장이 “건강보조식품의 적용 범위 및 성분규격의 공전화를 비롯, 점진적으로 25개 품목군의 기준·규격을 표준화시키는 데 주력하여 건강보조식품이 국민보건 향상에 본격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 1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25회 보건의 날 포상 계획’에 따르면 포상대상자는 국민건강증진활동에 크게 공헌한 자, 새로운 의약품·식품의 개발 및 생산으로 국민보건의료에 기여한 자 등이 추천대상으로서 해당 공적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수공기간(공적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했다.

On the National Health Day, April 7th in 1997, the late chairman Yunho Lee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Moran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His contribution to the society of promoting the health of Korean people as a leader in Korean aloe industry was honored by Korean Government. The contribution report filed by the Korea Health Supplemental Food Association (the name was changed now into Korea Health Functional Food Association. Yunho Lee served as the first chair of the organization, at the time of award-winning the chair was Seungwoo Nam, CEO of Pulmuone) said that Yunho Lee contributed to the national health through aloe, founded the Korean Health Supplemental Food Association, sought registration in Korean Food Standards Codex, gave hygiene education for sales people, and established pre-examination system.

Looking into the details of the report, he built overseas farms, founded Aloe Research Foundation, supported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ural Pharmacology, and 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 The report acclaimed that Yunho Lee set the ground for promoting national health through health supplemental food as he made great efforts in standardization of 25 products including setting the boundary of health functional food and its ingredients.

According to the prize pla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January 1997 for the 25th National Health Day, the award should go to a person who promoted the national health by developing and producing new pharmaceutical or food product, who has spent at least five years in his respective field, and the period of contribution should be more than 15 years.

글 | 문선유 기획위원 | 인사기획팀 | 에코넷홀딩스

By Sunyu Moon Planning Director | HR & Strategy Planning | ECONET Holdings

편집자 주 에코넷은 2010년부터 기록물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여기저기 먼지를 걷어내고 기록을 들추어내자 까마득히 잊힌 우리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에코넷 웨이』는 이렇게 발굴한 기록물을 통해 에코넷의 역사를 더듬어 가겠다.

Editor's note ECONET has been collecting and preserving its historic records from 2010. After taking out layers of dust, memories lost in time came into life. ECONETWAY means to track down ECONET history as it continues to excavate records.



한강과 서울숲

걷기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직장인들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걷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성수동이라 하면 산책 코스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보물 같은 두 곳이 있다. 바로 '한강'과 '서울 숲'을 꼽을 수 있다.

- 1) 에코넷 센터에서 성수공고 방향으로 10분만 걸다 보면 한강을 볼 수 있다. 시원한 강바람과 탁 트인 전망이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강의 흐름에 따라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보며 세상에 순응하는 자세를 배울 수도 있으리라. 에코넷 센터에서 왕복 약 20~25분이 소요된다.
- 2) 울창한 나무숲의 향기를 느끼고 싶으면 서울숲으로 가면 된다. 에코넷 센터에서 왕복30~35분이 소요되며, 한강에 가는 시간보다 10여분 더 걸린다. 하지만 나무향기와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서울숲에 가면,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으며 에너지가 충전된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서울숲으로 점심산책을 떠나보면 어떨까?

공송식 부장 | 경영지원팀 | 유니베라 한국

Han River and Seoul Forest

Everyone knows walking does a lot of good to the health of body and mind, but it is pity that those who are bound to office chair all day lack the time for activity. One option is to walk during lunchtime. Sungsu-dong area seems to be lacking in good walking courses, but I happen to know two great courses; the Han River and Seoul Forest.

A) Walking from ECONET Center toward Sungsu Engineering High School for ten minutes, Han River comes into sight. Cool breeze from the river and great view gives liberating feeling. Looking at the river which flows without hurry, one can contemplate on the benefit of going with the tide. It takes 20 to 25 minutes to walk from ECONET Center to Han River and walk back.

B) If you want to inhale the scent of deep forest, the Seoul Forest is your place. It takes 30 to 35 minutes to walk to and come back from ECONET Center to Seoul Forest, 10 minutes more than walking to Han River. However, it is so exhilarating to see children playing and to feel the refreshing air in Seoul Forest. When depressed, it would be a wonderful idea to pack your lunch and take a walk to Seoul Forest!

Seungsik Kong General Manager | Management Support Team | Univera Korea

(에코넷 명소 사진전)은 단순한 관광 명소의 기념 사진이나 단체 사진이 아니라 에코넷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의 사진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도 그곳에 에코넷 사람들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에코네시안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 에코네시안들이 사색에 잠기는 공간, 회사 안과 밖에서 동료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는 장소 등 여러 이야기를 담은 장소의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세요. 『에코넷웨이』에 사진이 게재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y favorite place of ECONET" is not just for group pictures or pictures of tourist attraction, but for places where memories of ECONETian is abound. Picture of tourist location is also accepted only if the place held memories of ECONETians.

We are looking for places that have meanings for ECONETians, places where ECONETians stop and ponder, places where ECONETians gather and spend time together, whether the place is inside or outside of the company.

Send us photos of your favorite place with short explanation. For those whose photo is published in ECONETWAY, a small gift will be given.

에코넷홀딩스 ECONET Holdings

에코넷 명사 특강 - 혜민 스님

ECONET's Special Celebrity Lecture - Monk Haemin



2012년 7월 에코넷 한국에서는 '에코네시안들의 정신적 행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혜민 스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7월 5일 서울 에코넷센터, 7월 6일 진천 네이처텍에서 진행된 에코넷 명사 특강을 통해 웰니스를 추구하는 에코네시안들은 주위 사람들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선 기자)

In July 2012, ECONET Korea held a special event where Buddhist monk Haemin was invited to give lectures under the theme of "Road to Mental Happiness of ECONETians." The time was spent for ECONETians pursuing wellness in their life, to look back on their lives and those of others around them through a special lecture held on July 5 at ECONET Center in Seoul and July 6 at Nauretech in Jincheon.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2012년 2차 대리점장 세미나 개최

Second Seminar for Distributor Presidents in 2012



2012년 7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2012년 하반기 대리점장 세미나가 강원도 하이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보통 연 1회 진행되던 대리점장 세미나가 올해는 상, 하반기 전략공유를 위해 2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병훈 총괄사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반기 우수대리점 시상 및 신규대리점 임명패 수여식이 있었으며, 하반기 주요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느 때와 다르게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사장 뒤쪽에 회사 제품을 주제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였다. 그림은 세미나 참여자 대상으로 경매에 붙여졌으며, 총 3,405,000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었다. 이 수익금은 그림을 구매한 대리점 이름으로 '힐링잎의 기적'에 기부할 예정이다. (윤미란 기자)



From July 11 to 12, 2012, a seminar for distributor presidents for the second half of 2012 was held in the High 1 Convention Center in Gangwon-do. The seminar, usually held once a year, was held to share company's strategies twice this year. It started with greetings from Chairman and CEO Bill Lee, followed by an awarding ceremony to recognize the excellent distributors of the first two quarters of 2012 and the appointment of new distributors, after which came the sharing of main strategies for the third and fourth quarters of the year. I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ones held in the past as there were drawings of professors from th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on the theme of the company's products were set up as exhibits at the back of the seminar room. The drawings were auctioned off to the participants and a total of KRW 3.405 million in profit came out of it. The profit will be donated to the "Healing Leaf Miracle" in the name of the distributors who purchased the drawings.

2012년 8월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 광고 시행

Advertisement inside Subway Train of Seoul Subway Line Two from August 2012



유니베라는 일반고객에게 '유니베라는 웰니스다'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유포(UP)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 LED TV 광고를 8월부터 시작했다. 기왕에 TV광고용으로 제작되었던 20초 분량의 '만나세요 유니베라, 누리세요 웰니스' 광고가 1일 최대 100회 노출되어 4개월 동안 총 32,000회 집행될 예정이다. 2호선은 1일 약 3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하루 평균 약 120만 명에게 보여진다. 특히 출퇴

근 시간의 3-40대에게 노출을 최대로 하여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기대한다. 8월에는 무료로 시범운영하다가 11월까지 광고를 집행할 예정이다. (민지희 기자)

To help the sales of Univera Planners (UPs) and rais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of "Univera is Wellness," Univera Kicked off advertisement on LED TVs in Subway Train of Seoul subway line two. The advertisement is entitled, "Meet Univera, Enjoy Wellness." The 20-seconds long advertisement is being broadcast 100 times a day at a maximum, for a total of 32,000 times in four months. The subway line 2 has about 3 million passengers daily and the advertisement is expected to be viewed by about 1.2 million commuters daily. In particular, the exposure of the advertisement to people in their 30s and 40s during commute time is expected to raise brand awareness of Univera among them. There was a free trial broadcast in August, and then it will be aired at cost until November.

웰니스 캠페인

Wellness Campaign

2012년 8월 21일 유니베라는 대리점과 고객을 대상으로 웰니스 캠페인을 시작했다. 웰니스 캠페인은 갱년기 체험단, 다이어트 체험단, 대사증후군 체험단, 속편한 체험단 등을 통해 유니베라 제품을 체험하고 만남의 축제, 체험의 축제, 나눔의 축제, 웰니스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UP가 되기 위한 교육도 받으면서 유니베라가 제공하는 W389 BB 썬케어와 빌리브 등 선물도 받는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이다. 웰니스 캠페인을 통해 유니베라 고객은 유니베라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면서 고객에서 UP로 변화할 것이다. 8월 21일 시작한 웰니스 캠페인은 11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주3회, 총20회 IP-TV를 통해 대리점과 고객이 시청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8월 21일 시작한 1차 웰니스 캠페인에 이어 9월 18일 2차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윤미란 기자)

On August 21, 2012, Univera launched its Wellness Campaign for its distributors and consumers. The campaign was composed of programs for people who have experienced Univera products for menopausal stage, diet, and metabolic issues, as well as other abdominal events; training for new UPs through meetings, product trying and Wellness festivals; and an event to receive gifts provided by Univera such as the W389 BB Sun Care and Believe Wellness Food. The campaign is expected to turn customers into UPs once they recognize the excellence of Univera products. The campaign launched on August 21 also includes IP-TV programs, which will be shown three times a week for three months until November, a total of 20 times for trainings of distributors and customers. Following the first campaign launched on August 21, a second campaign was commenced on September 18.

웰니스 푸른 꿈나무 캠프

Wellness Kids Camp

2012년 7월 31일~8월 3일 유니베라 유피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캠프가 열렸다. 3박 4일 동안 인간사랑 프로그램, 자연/문화사랑 프로그램,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총 15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을 몇 개 그룹을 나누고 그룹마다 돌아가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고루 참여할 수 있었다. 자연/문화사랑 프로그램과 캠프파이어는 자연갈피화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외 모든 프로그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윤미란 기자)

From July 31 to August 3, 2012, Wellness Kids Camp for the children of Univera UPs was held. The camp was composed of Love for Human being Program, Love for Nature Program, Love for Culture Program and various programs for four days. A total of 150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camp. These children were divided into groups, and each group took turns to partake in each activity, enabling all



유니베라 웰니스 캠페인	유니베라 웰니스 축제	유니베라 웰니스 축제	유니베라 웰니스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 웰니스 캠페인 시작

children to evenly enjoy the programs. The Love for Nature and Love for Culture Programs and campfire were held at the Galmoi School, the others were held at th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네이처텍 Naturetech

2012년 네이처텍 천렵 행사

2012 Naturetech's Summer Event "Cheonryeop"



네이처텍 생산기술팀은 2012년 8월 21일 회사 근처 매박골 원두막에서 '천렵(川獵)'을 진행하였다. 천렵이란 내천(川)자에 사냥 령(獵)자로 '냇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뜻하는데, 조상대대로 농번기가 끝날 무렵 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더위를 식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였다. 네이처텍의 천렵은 매년 생산기술팀이 주도하여 20년 넘게 이어진 네이처텍의 전통이다. 올해 천렵에는 특별히 이병훈 총괄사장을 비롯하여 각 사의 임직원들과 네이처텍 직원들이 함께 하여 생산기술팀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 (박인정 기자)

Production Engineering Team of Naturetech hosted the event held at a lookout hut in Maebakgol where is close by the company on August 21, 2012. "Cheonryeop" used to be held from age to age by Korean forebears to avoid the summer heat and promote friendship when the busy farming season was about to end. It is a tradition avidly observed by Naturetech for over 20 years, which is led by the Production Engineering Team. This year, Chairman and CEO Bill Lee, executives of each company, and Naturetech staff joined the event to enjoy a day of good and tasty food prepared by the team and to share hearty talks with one another.



네이처텍, 제36회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Naturetech Awarded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Award at the 36th National Productivity Champion Contest

네이처텍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36회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에서 동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220여 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동상은 그 중 4위에 해당한다. 참가 프로젝트는 '과립라인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과립제품의 수율 향상, 라인밸런스 향상, 봉합(sealing) 불량 감소, 중량산포 감소, 과립의 성상 개선 등의 결과를 내어 품질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2011년 제35회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에서도 생산성본부회장상(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번엔 연이어 수상하여 의미가 더욱 크다. 네이처텍 생산3팀 정형철 과장은 내년에도 더 나은 프로젝트로 도전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지영 기자)

Naturetech was awarded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Award that is equivalent to a bronze medal at the 36th National Productivity Champion Contest hos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organized by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About 220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contest and the bronze medal corresponds to the fourth place. Naturetech also received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Chairman Award (commendation award) in 2011 at the 35th National Productivity Champion Contest. Manager Hyoungchul Jeong of Naturetech's Production 3 Team pledged to work harder for better results as challenging the higher level of project next year.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유니젠 2012년도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Unigen Selected as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ith High Growth Potential of 2012

7월 26일 유니젠은 2012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 유니젠 대표로 표창민 상무가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총 300여 개의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35개의 기업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주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하면서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에서 금융기관 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기술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 참여도가 높은 기업, 기타 사업전망, 기술수준과 수출실적 등을 고려,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정기업은 정책자금에 대해 낮은 금리의 융자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지정일로부터 6년간 주어진다. (황지혜 기자)

On July 26, Unigen Korea was selected as the 2012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ith high growth potential by Chungcheongnam-Do. VP Chang-min Pyo attended the awarding ceremony and conference on behalf of Unigen. A total of 300 companies applied for the selection but only 35 were designated. The selection was based on evaluations of the soundness of financial structure by financial institutions; level of technology and quality including patents possessed; efforts made to technologically innovate and participate in government policies; other business prospects, level of technology, and export records; and the growth potential of companies located in Chungcheongnam-Do. Those selected will benefit from low-interest financial support for policy funds and technolog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open new markets at home and abroad for six year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에코넷홀딩스 USA ECONET Holdings USA

웰니스센터 개소

Wellness Center Grand Opening

미국 최초의 웰니스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8월 7일 새 에코넷센터에서 열렸다. 이병훈 총괄사장의 선물이라 할 웰니스센터는 퓨젯사운드(Puget Sound)의 엘리엇트 베이(Elliott Bay)의 멋진 경관에 한눈에 보이는 에코넷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시에틀의 에코넷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문에 모인 가운데 유니젠 임상연구소 상무 리디아 브라우넬(Lidia Brownell), 에코넷 재무부장 데이브 프레데릭(Dave Frederick), 알로콧 재무팀원 타티아나 살라자(Tatiana Salazar), 유니베라 CSO 스티븐 체네스키(Stephen Cherniske)가 커팅식에 참여했다. 커팅식에서 이병훈 총괄사장은 직원들의 웰니스를 지키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열정을 피력했다. 이어서 유니베라 카피라이터인 킴벌리 수왁(Kimberly Suwak)이 행사에 참가한 60여 명의 직원들에게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비치된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유산소 운동기구 8대, 자전거, 러닝머신 등
- 웨이트 및 벤치 프레스 기구
- 근력운동기구, 최고급 라이프 휘트니스 기구
- 기타 운동 도구, 의학용 볼, 밸런싱 볼 등

유니베라의 오라클 자료관리담당, 바이런 부쉬(Byron Bush)와 재무분석담당 에릭 펀트(Eric Punt)가 시연했다. 이후 직원들은 유니베라의 다이어트 제품인 에이지리스엑스트라(Ageless Xtra), 고베라(Go VERA), 에센셜즈(Essentials), 마틀 다이어트(Matol Diet)의 에너지/프로테인 바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즐





거운 한때를 보냈다.

개소를 기념하는 뜻에서 에코넷은 직원들에게 웰니스센터 티셔츠를 제공했다. 이러한 웰니스 시설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에코넷의 사명을 실천하는 에코네시안에게 대단히 훌륭한 환경이다.

The Grand Opening Ribbon Cutting celebration of the first United States ECONET Wellness Center was held on Tuesday, August 7th at the new ECONET Center. This generous gift from Bill Lee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with a magnificent view of Elliot Bay within the Puget Sound.

In celebration of the Grand Opening, Seattle employees gathered at the Center's entrance, as Bill Lee expressed his passion for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wellness followed by a ribbon cutting ceremony led by Lidia Brownell, VP, Clinical Research, Unigen, Dave Frederick ECONET Accounting Manager, Tatiana Salazar, Aloecorp Accountant, and Stephen Cherniske, Univera Chief Science Officer. Kimberly Suwak, Copywriter for Univera, demonstrated the safe use of the equipment to employees over 60 employees who attended. The equipment includes

- 8 cardio machines, e.g. stationary bicycles, ellipticals & treadmills,
- free weights & benches,
- resistance equipment, all top of the line Life Fitness machines, and
- miscellaneous items, medicine balls, balancing balls, etc.

A demonstration of sparring techniques was provided by Byron Bush, Oracle DBA and Eric Punt, Financial/Business Analyst, both of Univera. After these activities, employees gathered to share some treats including Univera's dietary products; Ageless Xtra, GO VERA, Essentials, Energy/Protein bars from the Matol Diet, and ice cream cake.

In honor of the Opening, ECONET provided Wellness Center Tee-Shirts to employees. This is a wonderful environment for all as we continue our mi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 Kind." (By Aleeta A. Davis)

힐탑가든 Hilltop Gardens

유니베라 한국 연수단 방문

Hilltop Gardens hosted Univera Korea

8월 9일, 힐탑가든은 한국에서 온 22명의 방문객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유니베라의 우수영업국과 영업국으로 승격한 대리점 사장들과 에코넷 가족사 우수직원들이었다. 방문단은 이틀간 힐탑가든에 머물다 유니베라 미국 컨벤션에 참여하기 위해 시애틀로 이동했다. 힐탑가든에 있는 동안 연수단은 라이프드의 새로운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렸다. 새로 개조한 침실에서 이를 밤을 보내고 아침식사를 했다. 트랙터에 실린 건초더미에 올라 새로 개발하고 있는 맥스 지(Max G)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알로에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힐탑가든을 돌아보며 지난해 방문한 사람들이 메모리얼 알로에 가든(Memorial Aloe Garden)의 벽돌에 적은 이름을 확인했다. 저녁에는 텍사스 스타일의 바비큐를 먹었다. 바비큐와 점심 식사는 모두 새로 구성된 접대부서가 즉석으로 조리하여 제공한 것이다. 식사 후에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On August 9th Hilltop Gardens hosted a group of 22 visitors from Korea. They were a group of Univera top sales associates. They stopped off for two nights and a fun packed day at Hilltop Gardens on their way to the convention in Seattle. While here they were able to take advantage of several of the new amenities at the Lyford, Texas facility. These new features included a two night stay in the newly converted bed and breakfast opened in the home Chairman Lee built for his family at Hilltop Gardens. The



highlight of the day was a hayride to the fields where they joined the farm crew planting aloe that will be used to make the new Max G ingredient that they will be selling. Other activities included a tour of the gardens at Hilltop where many found their names on bricks placed last year in the Memorial Aloe Garden. The day ended with a Texas style bar-b-que. The bar-b-que and lunch earlier in the day were provided by the newly formed hospitality department and made on site. The evening was topped off with a rousing session of karaoke and a fun time was had by all.

Hilltop awaits visits from any and all groups that would like to spend time here. To our friends from Korea, "ya'll come back now". (By Paul Thornton)

힐탑가든 홈페이지 개설

Announcing the Web Site

2012년 8월 힐탑가든은 새로 홈페이지(www.hilltopgarden.com)를 개설했다. 멋있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힐탑가든 홈페이지는 찾아오는 길, 소개, 공지사항, 사진 및 비디오로 구성된다. 또한 사이트 방문자는 힐탑가든에 있는 아름다운 B&B 숙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유기농 농장 운영, 식물 정원, 방문객 센터, 숙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illtop Gardens is proud to announce the opening of new web site (www.hilltopgarden.com) to the public. This beautiful and informative site abounds with directions, descriptions, notices, pictures and videos for your enjoyment. This site is also the portal to information on our beautiful B&B the Inn at Hilltop Gardens. Along with our Face book page, you can keep up with all that is happening at Hilltop Gardens whether your interest lies in our organic farming operation, the botanical gardens, visitor center or the Inn.

Many thanks to the Univera Brand Communication Team (Seonha Chi and her supervisor) in ECONET East and IT team in ECONET West (Jeremy, Kyle and their supervisor) who gave us tremendous support in the development and launch of the homepage.

Another vehicle for keeping up with all that is happening at Hilltop Gardens is through our Face book page. Just sign in and search Hilltop Gardens. This quickly updated page gives you a chance to see all the latest news and watch for the plant of the week to learn about the beautiful plants at the botanical gardens here. (By Joseph Kim)

힐탑가든, 최초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

Hilltop Gardens first television program

힐탑가든이 최근 한 지역 케이블 방송에 소개되었다. '애니 스테드베이크와 함께 하는 백 로드 리포터(Back Road Reporter with Annie Studebaker)'라는 프로그램이 '독특한 농장과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세 개의 에피소드 중 하나였다. 백 로드 리포터(Back Road Reporter)를 검색하거나 'Unique Farms and Gardens'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ita3YAeMJ4g>)

힐탑가든을 다룬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로드 리포터가 케이블에서 방송되면서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리포터는 힐탑가든 경영진을 인터뷰했다. 힐탑가든은 관련 시설 및 여러 편의시설을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방영을 비롯하여 향후 홍보를 통하여 힐탑가든은 에코넷과 일반 대중들에게 독특한 장소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Hilltop Gardens was recently featured in a television program on a local cable network. The program



is called "Back Road Reporter with Annie Studebaker". The story on Hilltop Gardens is one of three in an episode called Unique Farms and Gardens. You can view the entire program on You Tube by searching Back Road Reporter and click on Unique Farms and Gardens.

(<http://www.youtube.com/watch?v=ita3YAeMJ4g>)

This is just the first television exposure for HTG. As the Back Road Reporter program began showing on cable, the management team was sitting in interview with a reporter from a local broadcast station. Hilltop Gardens is methodically introducing itself and all of our great amenities to the public at large. With this and future public exposure Hilltop Gardens aims to become a destination of distinction for the ECONET and the public in general. (By Paul Thornton)

알로콧 중국 Aloecorp China

GMP 재인증 Recertified GMP

5월 8일 알로콧 중국은 해남성 식약품 관리감독국으로부터 건강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재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한 달여에 걸친 관련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된 이번 GMP 재인증은 향후 2015년까지 3년 동안 효력을 갖게 된다. (정의선 대리)

On May 8, Aloecorp China succeeded at acquiring again the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for its health food manufacturing facilities from the food and drug inspection authorities of Hainan. The GMP certificate acquired through fair examination for a month by related organizations is effective for three years until 2015.



QS 인증 QS Certificate

7월 21일 알로콧 중국은 해남성 품질기술감독국으로부터 QS(Quility Safety) 인증을 받는 경사가 있었다. QS 인증은 중국 정부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즉 QS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은 중국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다. GMP 재인증과 함께 QS 인증을 통해 중국 내에서 알로콧 중국의 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향후 중국 내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의선 대리)

On July 21, Aloecorp China acquired the Quality Safety (QS) certificate from the quality technology inspection authorities of Hainan. The QS certificate mea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guarantees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product. That is, products of companies with the QS certificate can earn the trust of consumers in China. The status of Aloecorp China in China was reconfirmed through the GMP recertification and acquisition of the QS certificate and they are expected to greatly help increase sales in China.



유니베라 미국, 컨벤션 개최 Univera Hosts Successful Convention and Showcases New World Headquarters



① 토요일 저녁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이병훈 총괄사장 Mr. Lee closing our program Saturday night ② 2012년 이연호 상을 수상한 블루 다이아몬드 안 보야노브스키 Our Blue Diamond Jan Boyanovsky was awarded with the Yun Ho Lee award for 2012 ③ 참석자들에게 스트레칭 시범을 보이는 스티븐 체네스키 Stephen Cherniske getting the audience up for a stretch break

8월 9~11일, 유니베라 미국은 컨벤션을 개최했다. 더 많은 유니베라 어소시에이트들이 웰니스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컨벤션에 참가한 어소시에이트가 2011년에 비해 30퍼센트 증가했다. 컨벤션에서는 새로운 Protein Quotient Diet System(PQ Diet™)을 소개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어 신체에 최적의 단백질 비율을 유지시키는 과학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이다.

제품 출시, 교육 워크숍, 기업 공지 외에 기업 임원진과 어소시에이트 리더, 내셔널 지오그래픽 데시트 존스(Desitt Jones), 저명한 리더십 강사인 레스 브라운(Les Brown)의 호소력 있는 연설이 펼쳐졌다. 아울러 유니베라는 시애틀 시내에 마련한 새로운 본사 건물을 선보였다. 7만 평방피트가 넘는 빌딩이 푸짓 해협의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생명 공학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은 여러모로 유니베라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신규 본사 건물의 개관과 함께 개최된 올해의 컨벤션은 우리 사업의 성공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우리 어소시에이트들이 목표를 훌륭히 성취하고 계십니다.”라고 유니베라의 랜디 반시노 사장은 말했다. 유니베라의 컨벤션은 이병훈 총괄사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내렸다. 이병훈 총괄사장은 유니베라의 강력한 수직계열화 모델에 관해 설명하면서 조만간 선보일 획기적인 제품에 대해 언급했다.



Puget Sound.

“2012 is a pivotal year for Univera in so many ways” said Univera President Randy Bancino. “This year’s powerful Annual Convention, simultaneous with the grand opening of our new World Headquarters are indicators of the trajectory of our business and the success our Associates are having achieving their goals.” Univera’s Annual convention ended with a keynote speech by Founder and Chairman, Bill Lee, where Mr. Lee discussed the power of Univera’s vertical integration model and hinted at significant science and product breakthroughs that will be unveiled in the near future. (By Randy Bancino)

목요일 밤 행사를 연 비틀즈 헌정 공연
Beatles Tribute to open the event Thursday night

에코넷 직급별 행사



2011년부터 에코넷에서는 원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같은 직급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사원급 행사에 이어 2012년에는 대리급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가 6월부터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대부도에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가평(남이섬)에서 진행한 직급별 행사는 참여자들간의 소통을 통해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이번 3차례의 행사에서는 2012년 근속 20주년을 맞이한 에코넷의 선배들이 후배들과 만나 그 동안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참가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속사를 구분하지 않고 어우러져 에코넷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시간 협력과 조율의 바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자 하는 직급별 행사는 2012년 하반기에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 ① 즐거운 게임 시간 (1회차 모임)
Have fun at a game (1st event)
- ② 자기소개 시간 (1회차 모임)
Self-introduction time (1st event)
- ③ 펜션 앞에서 단체 사진 (1회차 모임)
Group photo in front of the resort pension (1st event)
- ④ 서로에게 보내는 정성 어린 메시지가 담긴 롤링페이퍼
Cards containing messages to each other

- ① 후배 앞에 선 에코넷의 선배, 유니베라 김경식 본부장
Kyoungsig Kim is in front of ECONET juniors, as a senior who has worked for 20 years at ECONET.
- ② 즐거운 저녁 시간 (2회차 모임) An enjoyable party evening (2nd event)
- ③ 롯데월드에서 팀별로 미션 수행하기 (2회차 모임) On a mission by team at Lotte World (2nd event)
- ④ 롯데월드에서 단체 사진 Group photo at the Lotte World (2nd event)



ECONET's Events by Positions



Since 2011, ECONET has held gatherings of people with the same position part of efforts made to improve smooth in-house communication. Following last year's clerk-level event, three events were held from June to July 2012 for Assistant Manager-level. The events were held from June 15 to 16 in Daebudo, Gyeonggi-do, from June 22 to 23 in Seoul and from July 13 to 14 in Gapyeong (Nami Island), Gyeonggi-do. The events held to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participants of the same position were on their own from beginning to end. In particular, senior ECONET staffs who have worked for 20 years at ECONET held a session to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m in these events. That time was highly favored by the participants. The events by positions for Manager-level, which aim to build a sense of community in ECONET regardless of which company the participants work for and to cooperate and fine tune opinions between different companies for a more solid foundation, will be held in the latter half of 2012.



- ① 남이섬에서 단체 사진 (3회차 모임) Group photo at Nami Island [3rd event]
- ② 소주병으로 화병 만들기 (3회차 모임) Creating a soju bottle vase [3rd event]
- ③ 유리 목걸이 만들기 (3회차 모임) Creating a glass necklace [3rd event]
- ④ 자기소개 시간 (3회차 모임) Self-introduction time [3rd event]
- ⑤ 즉석사진 Polaroid [3rd event]
- ⑥ 직접 만든 유리 화병들 Handmade glass vase



에코넷웨이 퀴즈 ECONETWAY Quiz

“1997년 4월 7일 제25회 보건의 날에 고 이연호 회장은 ○○○○ ○○○을 수상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알로에 산업을 선도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서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각사의 에코넷웨이 기자단 또는 에코넷웨이 편집실 (minsun@namyangglobal.com)로 정답을 보내 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하여 선물로 베라스파 핸드크림을 드립니다.

“On the National Health Day, April 7th in 1997, the late chairman Yunho Lee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Moran Medal of the Order of ○○○○○ ○○○○○. His contribution to the society of promoting the health of Korean people as a leader in Korean aloe industry was honored by Korean Government.” What should be “○○○○○ ○○○○○” in?

Please send the answer to the editing room of ECONET Way (E mail minsun@namyangglobal.com) or to ECONET Way reporters in each company. We will cast lots to see who can be given Vera Spa Hand Cream as a gift among those who answer correctly.

Last Issue's Winners

Q : 유니베라 어소시에이트와 이병훈 총괄사장의 온두라스 방문은 아주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바로 “누구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유니베라 ○○○○○가 아동들에게 끼친 영향을 직접 경험했다.

A : 서브퍼스트

- 유보미 | 네이처텍
- 이희경 | 네이처텍
- 임태규 | 에코넷홀딩스
- 정재욱 | 네이처텍

Q: The travel to Honduras for Univera Associates and the owner Bill Lee was a very moving experience. The one thing I would share with all is, “one can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We saw it with our own two eyes, we experienced the impact the contributions from Univera “○○○○○ ○○○○○” makes on these children!

A : Serve First

- Erika Yazmin Torres Reyes | Aloecorp Mexico
- Luis Fajardo Estrella | Aloecorp Mexico

● 에코넷웨이 40호를 보고

『에코넷웨이』는 에코넷의 역사적 순간을 충실히 담아내는 역사적 기록이자 에코네시안의 소통의 채널로서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길이 되고자 합니다.

『에코넷웨이』를 보고 느낌 소감이나 비평, 혹은 에코넷과 『에코넷웨이』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마련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minsun@namyangglobal.com

커뮤니티 <http://eggs.econetway.com/KMS/Portal/Community/Default.aspx?CommunityID=1059>

Readers' opinions about the vol. 40 of ECONETWAY

ECONETWAY is a record of historical moment of ECONET, and also a communication channel of ECONETians.

We want to make the way for upholding the value of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For those who send their thoughts after reading ECONETWAY, and those who advise on the rightful course of ECONETWAY,

we always welcome the opinion of readers, and will send small gifts for them.

Please send your opinion to the reporters of ECONETWAY or to ECONETWAY Editorial Office.

E-mail minsun@namyangglobal.com

에코넷 가족 ECONET Family

모든 어른을 부모같이, 모든 아이를 자식같이
The Elderly as our Parents, All Children as our Own

에코넷홀딩스 ECONET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8865, Fax: +82-2-467-9988
www.econetholdings.com

에코넷홀딩스 USA ECONET Holdings USA

3005 1st Ave.
Seattle, Washington 98121, USA
Tel: +1-360-486-8300
www.econetholdings.com

힐탑가든 Hilltop Gardens

100 Lee Lane
Lyford, TX 78569, USA
Tel: +1-956-262-2176, Fax: +1-956-262-2487
www.hilltopgarden.com

네이처텍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우: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eon,
Jincheon-Gun, Chungbuk, 365-850, Korea
Tel: +82-43-532-5144, Fax: +82-43-532-5328
www.naturetech.co.kr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3005 1st Ave.
Seattle, Washington 98121, USA
Tel: +1-360-486-7500
us.univera.com

알로콥 미국 Aloecorp USA (Headquarter)

3005 1st Ave.
Seattle, Washington 98121, USA
Tel: +1-360-486-7400
www.aloecorp.com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3100, Fax: +82-2-463-9162
www.univera.com

유니베라 캐나다 Univera Canada

52 Hymus, Suite 101
Pointe-Claire, Quebec
H9R 1C9
Tel: +1-514-426-2865, Fax: +1-514-693-3425
www.univera.com

알로콥 멕시코 (생산) Aloecorp Mexico (Farm & Operations)

Aloecorp de Mexico
Carretera Tampico-Mante km 89
Gonzalez, Tamaulipas, Mexico 89700
Tel: +52-836-273-2146, Fax: +52-836-273-2146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우: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82-41-529-1510, Fax: +82-41-529-1599
www.unigen.net

유니젠 미국 Unigen Inc.

3005 1st Ave.
Seattle, Washington 98121, USA
Tel: +1-360-486-8200
www.unigen.net

알로콥 중국 Aloecorp China

만녕사무실 / Wanning Office / 万宁办公室
海南省萬寧市禮紀鎮茄新村 南洋蘆薈基地 郵編 : 571529
Hainan Aloecorp, Jiaxin Village,
Liji Town, Wanning, Hainan, China, 571529
Tel: +86-898-6258-5078 FAX: +86-898-6258-5018
www.aloecorp.com.cn

이음 EUM F&B, Wellness Italian Restaurant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8875
www.eumfnb.com

유니젠 러시아 Unigen Co., Ltd.

Office 707, Prospect Kranogo Znameni 59,
Vladivostok, Primorsky territory, Russia.
Tel: +7-4232-30-2886, Fax: +7-4232-43-17-78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